

성남문화재단에서 활용 가능한

문화통화제 모델제안 및 실행전략 연구



성남문화재단에서 활용 가능한
문화통화제 모델제안 및 실행전략 연구

2007.02



<제목 차례>

1. 연구 배경	1
1-1 사회적 배경	1
1-2 문화정책적 배경	3
2. 연구의 목적과 범위	7
2-1 연구의 목적	7
2-2 연구의 범위	9
3. 성남문화통화제의 이해	11
3-1 문화재단과 지역통화제도의 결합으로서의 문화통화의 성립가능성	11
3-2 지역통화 사례 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 도출	16
3-3 성남문화통화제 도입과 성남문화재단의 문예진흥 대상군/ 목표군/ 정책영역 분석	22
3-4 성남문화통화제 도입의 기대효과	23
3-5 성남문화통화제의 개요(안)과 운영원리(안)	25
3-5-1 성남문화통화제 개요(안)	25
3-5-2 운영원리(안)	27
3-6 국내외 관련 사례	28
3-6-1 지역통화의 유형	28
3-6-2 지역통화의 운영 현황	28
4. 성남문화통화 도입을 위한 문화예술 환경 분석	29
4-1 성남문화재단의 자원 분석	29
4-2 성남시의 주체적 조건 분석	33
4-3 성남시 지역통화 사례 분석	40
4-3-1 사례	40
4-3-2 함의와 고려사항	41
5. 성남문화통화제 모델 제안	42
5-1 재단주도모델 : 사랑방문화클럽활성화를 중심으로	42
5-1-1 모형도	42
5-1-2 기본흐름도(안)	42
5-1-3 사업의 목적과 추진 원칙	42
5-1-4 사업의 내용	43
5-1-5 추진체계	47
5-1-6 추진전략	48
5-1-7 2007년 시범사업 추진일정	48
5-1-8 고려사항	48
5-1-9 예산	49
5-2 재단지원모델 : 지역문화공동체 활성화를 중심으로	49

5-2-1 개념도	49
5-2-2 기본흐름도(안)	50
5-2-3 사업의 목적과 추진 원칙	50
5-2-4 사업의 내용	51
5-2-5 추진체계	55
5-2-6 추진전략	56
5-2-7 1차년 시범사업 추진일정	56
5-2-8 고려사항	56
5-2-9 예산	57
5-3 금융카드사 연계 문화통화 응용형 모델	58
5-3-1 개념도	58
5-3-2 기본흐름도(안)	58
5-3-3 사업의 목적과 추진 원칙	59
5-3-4 사업의 내용	59
5-3-5 추진전략	60
5-3-6 고려사항	60
6. 성남문화통화 활성화 추진전략	61
6-1 문화통화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쟁점	61
6-1-1 순환율 제고를 위한 시민의식 미성숙	61
6-1-2 적정 재원 규모 산정의 어려움	61
6-1-3 사회적 합의 도출의 어려움	61
6-1-4 공공부문의 문화적 방향에 대한 개입과 거액 거래자의 시스템 장악 가능성	62
6-2 문화통화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운영 방향	62
6-2-1 적정재원마련 및 현실적 운영계획 수립	62
6-2-2 단계적 접근	62
6-2-3 성남시의 의지	63
6-2-4 성남문화재단의 주도적 역할	63
◇ 참고문헌	64
■ 부 록. 성남문화통화도입을 위한 『문화정책 대화모임』 대화록	65

<표 차례>

표 1 법정통화와 지역통화의 차이	11
표 2 문화예술과 지역통화 간 제휴의 기대 효과	14
표 3 국내 사례 현황(1999년 10월 현재)	16
표 4 참여자들이 등록하고 있는 품목(다중응답)	18
표 5 교환거래를 하지 않은 이유	18
표 6 지역통화제도의 장애요인에 대한 인식(다중응답)	19
표 7 성남문화통화제 도입과 성남문화재단의 문예진흥 대상군/ 목표군/ 정책영역 분석표	22
표 8 문화예술진흥 대상군/ 목표군/ 정책영역에 따른 문화통화제 도입의 기대효과	24
표 9 성남문화통화제 개요	25
표 10 성남 문화예술 자원 현황	34
표 11 성남문화예술단체 현황	36
표 12 커뮤니티의 성격	37
표 13 문화클럽 유형별 특성	37
표 14 문화클럽의 요구사항	38
표 15 문화통화 거래등록 양식 예시	44
표 16 문화통화 거래절차	46
표 17 문화통화 거래등록양식 예시	47
표 18 문화통화 거래내역 조회 예시	47
표 19 재단주도형 문화통화제 1차년 운영예산	49
표 20 광명시 문화통화 ‘그루’ 통장 양식 예시	51
표 21 문화통화 거래등록 양식 예시	52
표 22 문화통화제 운영 대상군별 지원가능 커뮤니티	53
표 23 단위거래등록소 회원교육 의결사항 체크리스트	54
표 24 재단지원 문화통화제 사업시행 1차년 예산	57

<그림 차례>

그림 1 지역통화를 활용한 문화 생태계의 육성	5
그림 2 문화통화제의 확장모델	15
그림 3 성남시 문화정책 수립 개념도	31
그림 4 재단주도 문화통화운영사업 개념도	42
그림 5 재단주도 문화통화운영사업 흐름도	42
그림 6 문화통화제 운영 추진 체계	48
그림 7 재단지원 문화통화제 모델 개념도	49
그림 8 재단지원 문화통화제 모델 사업 기본 흐름도	50
그림 9 재단지원 문화통화제 모델 사업 세부 흐름도	50
그림 10 통장기장방식 예시 : 광명지역통화 그루	55
그림 11 재단지원문화통화제 추진체계도	55
그림 12 금융카드사 연계 문화통화제 개념도	58
그림 13 금융카드사 연계 문화통화제 사업 흐름도	59

1. 연구 배경

1-1 사회적 배경

○ 저성장 위험사회에 대한 주체적 대응 필요성

- 한국사회는 급격한 세계화, 정보화의 물결 속에서 사회적 양극화가 예상되고 있다. 대량의 비정규직과 실업 문제로 드러나고 있는 고용 불안정, IMF 경제위기 이후 가속화된 사회적 양극화와 향후 진행될 한미 FTA 등은 극단적인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제적 발전 자체가 사회적 양극화로 이어지는 현 상황에서 사회적 유대의 해체와 공동 가치의 무력화는 전사회적인 위기감의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적 불확실성은 개인의 생존 문제를 절대화하면서 사회적으로 감당해야 할 과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위험사회’로서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국가의 실패, 시장의 실패가 가시화되는 현 상황에서 ‘저성장 위험사회’의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주체와 모델 구성을 통한 제 3의 대안이 필연적이다.

- 제 3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거대 국민경제와 글로벌한 경제사회의 출현으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위험을 인식하고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관계성을 재구축하여 사회적 필요에 대응해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다. 말하자면 기존의 공공성을 해체하여 효율적인 민영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당면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나갈 새로운 연대와 유대의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이러한 차원에서 ‘사회시장’의 형성을 위한 대안적 노력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많다. 사회시장이란 사회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신뢰, 규범, 네트워크라는 사회조직의 특성에 기반하여 사회자본을 축적하려는 커뮤니티 해결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¹⁾. 기존의 시장은 가격경쟁에 의해 분배가 이루어지는 시장원리를 절대적인 준거로 정당화하였지만, 시장은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적 격차를 생산할뿐만 아니라 표준화된 척도로 각 개인과 집단의 고유성을 침해하고 미래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

- 따라서 기존의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획일적이고 표준화된 교환방식을 넘어서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지역통화의 문제의식은 기존의 시장에서 거래되는 법정통화의 문제를 인식하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상호협력적 교환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각 지역 단위의 사회시장을 형성하려는 노력에 부응하는 실천적 제도라고 할 수 있다.

- 지역통화의 문제의식은 ‘저성장 위험사회’의 문제들을 대면하면서 지역의 기능을 회복하려는 자구적이고 자율적인 시도로 자리매김될 수 있다. 지역통화 시스템의 작동은 지

1) 사회시장 형성에 대한 연구로는 마즈다시 기획부 정책심의실, [사회시장 형성에 관한 기본 조사연구], 성남문화재단, [성남문화통화 도입을 위한 일본 지역통화 연수집], 2006, 29-38쪽 참조.

역사회의 경제적 침체와 사회적 위협에 대응하여 자원의 유출을 방지하고 안전사회로의 가능성을 스스로의 실천에 의해 확보하려는 대안적 문화운동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 결론적으로 지역통화 전략의 중요성은 “한편으로는 지역공동체가 연대의 원리에 따라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경제’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책임성있는 ‘안전사회’의 가능성을 내놓는다는 데에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분권화를 통해 자율성과 창의성에 기초한 자율적인 시민사회를 육성”²⁾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 사회적 요구에 대한 문화정책적 대응의 필요성

- 한국사회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소비사회로 이행한다. 1980년대 후반, 정치적 차원의 민주화와 자유화의 진전, 경제적 차원의 3저호황 국면의 전개, 사회적 차원의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개최 등으로 이어진 전반적인 사회적 자유도의 증가는 급속한 소비주체의 형성이라는 흐름을 형성한다. 레저에 대한 관심, 자기 책임과 권리에 대한 인식 증가, 글로벌한 관심사의 형성 등은 바로 이러한 소비사회로의 진전과 관련되어 있는 사회적 징후들이라고 할 수 있다.

- 그 후 한국사회는 소비사회적 주체의 형성으로부터 비롯되는 다양한 요구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IMF 경제위기를 경과하면서 사회적 요구와 충족 수준 사이의 괴리가 확장되어 한국사회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각종 사회적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결과 사회적 요구에 대한 문제해결력의 부재라는 문제를 여실히 노정하게 된다.

- 특히 사회적 양극화는 의료, 보건, 교육, 문화 등 사회적 서비스의 급격한 증가 요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지역정부는 사회적 정책 분야에 제한적인 수준에서나마 예산 투입을 늘려나가지만 그 서비스의 질은 개선되지 않은 채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만성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 사회적 서비스의 질 향상이라는 대중적 요구와 정부 주도의 실행 시스템 사이의 괴리는 각종 사회적 서비스를 경제적으로 효율화하는 방식의 민영화, 재단 설립, 위탁 관리 등의 증가로 이어지지만, 이러한 서비스를 지탱할 수 있는 자생적이고 자립적인 사회적 설계가 동반되지 않는 한 이러한 효율화 논리는 공공성의 해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 문화정책의 측면에서도 새로운 문화정책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사회가 절대 빈곤을 벗어나면서 시민들은 문화적 향유, 문화적 접근, 문화적 환경에 대한 욕구와 권리의식이 증가하고 있다. 삶의 공간인 도시의 경우에서도 문화적 쾌적성을 요구하는 수요가 급팽

2) 김형용, [한국지역통화운동의 성격과 참여자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1999, 2쪽.

창하고 있다. 말하자면 문화정책에 대한 요구가 단순히 수준높은 공연물을 관람할 수 있는 향유 수준의 요구로부터 벗어나 삶의 제 측면에서 문화적 기준을 요구하는 욕구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이 팽창하고 있는 문화 욕구에 대응하여 정부는 <창의한국>이라는 참여정부의 문화정책 로드맵을 통해 문화의 범위를 광의로 확대하는 새로운 문화정책을 입안한 바 있고, 문화예술교육, 문화도시, 지역문화, 도시공간, 문화복지 등의 새로운 정책 과제가 공공문화정책의 영역 내로 확장된 바 있다.

- 사회적 공적 서비스는 국가 수준의 정책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수준의 정책에 의해서 제공되어야 하며, 시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공적 서비스의 질이 시민의 만족 정도와 직결된다. 특히 문화를 통한 도시 관리의 중요성은 도시에 내재하는 위험에 대처하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문화도시의 문제의식의 확장은 도시정책적 차원에서는 기존의 개발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새로운 모델로서의 가치가 부여될 수 있다.

- 하지만 문화도시의 구체화는 지역사회가 활력을 띠고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을 형성해야 한다는 핵심적 과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합의과정이라는 문화도시화의 전제는 단순히 의사소통의 과제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적절한 사회적 시스템 설계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지역 통화의 문제의식은 바로 이러한 사회적 설계를 시민주도적으로 형성해나가는 구체적인 과정에 대한 설계로서 자리매김 될 수 있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 모델 수립을 위한 지역 스스로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다.

1-2 문화정책적 배경

○ 지역통화제도의 활용을 통한 문화정책의 효율화 필요

- 도시정책은 이러한 사회적 서비스의 확대 요구에 따라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자원 사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도시 정책의 핵심 중의 하나가 도시 스스로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에 있다면, 사회적 서비스 제공이 단순히 욕구에 대응하는 수준에서 작용하는 것을 넘어 지역 사회 내 순환 구조를 통해 자립적인 기능을 회복해 가는 방안의 설계는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 지역 통화제도의 의미는 기본적으로는 민간 차원의 재지역화(re-localization)의 문제의식에 가까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통화제도는 각각의 조건에서 주체적이고 창조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지역통화제도는 활동과 실천 영역에서 이미 그 기능을 유연하게 확장하면서 다양하게 적용되어 오고 있다. 지역통화제도는 거래 내역에 따라 이미 교육통화, 복지통화 등의 형태로 확장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통화의 설립 주체에 따라서도 시 정부 등의 지원모델과 관련해서 유연하게 적용되고 있다.

- 성남문화통화 모델 개발이라는 과제 역시도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지역 내 개인과 단

체들의 연계망을 구축하여 문화행정 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이고, 문화적 서비스의 내용을 다양화함으로써 도시정책의 질을 높이고 효과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화통화 제도의 도입은 장기적인 전망에서 지역 자원의 활용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지역의 문화적 주체를 형성하며 지역 주체들 사이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다.

- 물론 지역통화제도의 선택적 활용은 적지 않은 문제를 드러낼 수 있다. ‘지역통화’제도의 ‘문화통화’로의 활용은 후술하겠지만 그 선례가 많지 않고, 더욱이 공적 기관에 의한 통화 제도의 도입은 성공적인 활용 케이스가 매우 드문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경험적으로 확인되는 지역통화제도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제약 요소는 모델 개발과 실행 전략 도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통화제도의 창조적 적용 가능성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 지역통화의 문화정책적 활용은 기본적으로 시행주체와 대상이라는 문화정책 상의 이원적 구조를 해체하여 문화정책의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사회정책 분야로의 확장 가능성을 높여 새로운 문화도시 모델을 구축하는 시도로서 위치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적용 상의 문제에 대한 매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리면서 현재의 조건에서 비롯되는 단계 설정과 모델 개발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 성남시와 성남문화재단의 효과적 지원 모델의 필요성

- 성남시는 한국사회의 도시 개발 역사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로를 겪어 왔으며, 이 결과 구도시와 신도시 사이의 생활의 격차가 가장 극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장소이다. 한편으로는 분당, 판교 개발을 통해 한국사회 부의 벨트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구도시의 경우 도시 개발에서 소외된 잠재적 박탈감이 잠재화되어 있다.

- 성남시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도시이다. 따라서 타 시도와 비교하면 정책적 여력이 상대적으로 큰 것은 사실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도시 자체가 해결해야 할 수많은 난제를 안고 있는 도시이기도 하다. 성남문화통화의 도입은 ‘문화’를 통한 도시정책 모델을 선도적으로 개척하는 의미 외에도 문화통화의 시행을 통해 성남시가 안고 있는 ‘단절’을 극복해가는 공공정책 모델을 정착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다.

- 성남시는 성남문화재단과 성남아트센터 개관을 통해 문화정책을 전문화하고 시민들의 문화적 향유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성남문화재단이 가지고 있는 공간, 인적 자원의 효과적 활용 외에도 문화재단이 시행하고 있는 문화도시 사업, 예술인 지원 등의 사업을 재배치하여 문화적 지원 모델의 효과를 높이는 방안 모색이 필수적이다.

- 특히 성남시와 문화재단은 2006년도 ‘주민이 주체가 되는 문화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하여 5대 문화정책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5대 문화정책 사업은 ‘문화도시 정체성 구축’,

‘창작활동 진흥사업’,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사랑방 문화클럽 네트워크 구축’, ‘문화통화 시스템기반 조성사업’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이 계획은 문화도시 구축을 주민의 창조적 네트워크 활동과 공간의 문화예술적 재생 작업 등을 통해 문화도시의 실체를 구축해간다는 전략을 표현하고 있다.

- 성남문화재단의 문화도시 사업 전략은 다시 말하자면 예술 창조, 문화 매개활동, 시민의 향유 사이에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다. 문화와 예술의 창조, 매개, 향유 사이의 선순환 구조 형성이라는 과제는 시의 정책 차원에서 보자면 문화가 중심이 되는 ‘생태계’를 조성하여 장기적으로 문화도시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적 개념의 표현인 셈이다.

- 이는 이미 경기문화재단에서도 주목했던 차원인 바, 그 의미를 도식화시켜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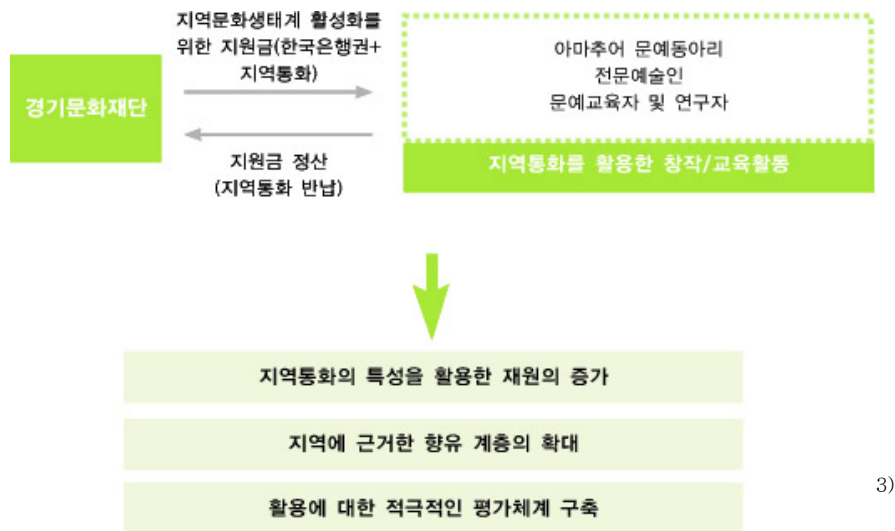


그림 7 지역통화를 활용한 문화 생태계의 육성

3) 경기문화재단, [문예진흥을 위한 지역통화 활용방안 연구], 2004, 35쪽.

- 이 과정에서 ‘문화통화’ 제도의 도입은 정책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예술 지원의 순환 구조를 형성하며 예술향유 기반을 구축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문화통화의 도입은 도시 내에서 작동하는 커뮤니티 솔루션을 만들고, 관계를 형성하고 관계 밀도를 증가시켜 스스로의 자립 패턴을 만들어 내 공동의 경험을 도시의 윤택한 공동자산화하는 일이 가능하게 하는 차원에서 배치되어 있다.
- 이와 같이 문화통화 모델의 도입은 구체적인 실행 모델과 전략이 동반된다면 문화예술 지원의 새로운 모델로서의 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다. 특히 성남문화재단의 입장에서 문화통화제도의 도입은 문화도시 사업을 주민의 창조성 개발과 연관시켜 구체화할 수 있는 주요한 전략적 포지션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의 목적과 범위

2-1 연구의 목적

○ 지역통화 모델의 활용 가능성 도출

- 이미 살펴보았듯이, 지역 통화는 주로 시민 기반의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다. 즉 지역 통화는 신뢰를 토대로 하는 공동체 사회의 존재, 혹은 이러한 공동체의 형성을 촉진하는 매개적 위상으로 자리 잡아 왔다. 지역통화 제도는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지역 내에 잠재된 자원을 연결하여 상호 협력과 상호 부조의 관계를 창출하는 시민 영역의 제도이다.

- 성남 문화통화 도입을 위해서는 지역통화 모델에 대한 창조적 변형이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다루어야 하는 핵심적인 사항은 ‘지역통화가 무엇인가’라는 문제 차원보다는 성남의 주객관적 환경 분석을 통해 문화통화의 도입 가능성과 실행계획을 제시하는 차원이 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문화재단 내에서 문화통화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작업은 이미 서울문화재단과 경기문화재단에서 연구된 바 있다. 문화통화 관련 연구는 김해보씨의 <지역문화재단의 문화통화 도입 및 활용방안 연구-서울문화통화를 중심으로>와 경기문화재단의 <문예진흥을 위한 지역통화 활용방안 연구>가 대표적이다. 이 연구들은 개념적 모델 도출을 통한 문화정책적 의미를 도출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

- 그럼에도 문화재단 수준에서 문화통화 제도의 도입이 실행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가장 주요하게는 정책적 의미 도출에 방점이 놓여져 있어 실행 모델로의 구체화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문화통화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의지의 조직화라는 차원이 중요한데, 실질적으로는 구체적인 사업과의 연관성이 제시되지 않아 추상적 모델 개발에 그치고 있다.

- 따라서 문화통화 도입을 위한 구체적 지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문화통화’ 자체의 의미보다는 문제해결의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강조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성남 문화통화가 해결해야 할 문제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해결을 위한 주체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며, 해결을 위한 협업 및 네트워크의 구체상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핵심 목적으로 명확하게 설정한다.

○ 성남 문화재단의 주도성을 전제한 역할 모델 수립

- 문화통화 도입 초기에 있어 통화 모델의 주체와 역할을 설정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주체 설정이 가능해져야 그에 합당한 모델 구성과 역할 안이 작성 가능하

기 때문이다. 성남 문화통화 도입 방안 연구에서는 현실원칙에 근거하여 성남문화재단을 초기 주체로 설정한다.

- 물론 성남시에서도 초기적 형태의 지역통화 시스템이 가동된 바 있고 현재도 가동 중이다. 성남시에서 행해진 여러 사례 중에 여타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가능성으로는 명확하다. 하지만 연구를 실행 작업화하기 위해서는 문화통화 도입 초기에서는 분명한 역할 수행이 가능하고 이에 대한 동기가 존재하는 대상을 주체로 설정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성남문화재단의 초기적 역할 설정에서 주도성을 전제한다.

- 이 연구는 성남 문화재단을 주체로 설정하고 문화재단의 자원 목록과 활동 내용을 재구성하여 시행 가능한 역할 모델을 산출한다. 역할 모델 수립 내용은 통화 활성화의 전제인 ‘신뢰의 담보 역할’, ‘시스템 설계 및 운영 역할’, ‘초기 운영 재원 마련’, ‘활성화를 위한 시 행정과의 협력관계 구축’ 등을 포함한다.

- 이 연구는 성남시의 주객관적 환경 분석과 성남문화재단의 사업 분석을 통해 문화통화 도입을 위한 적용 가능한 모델을 추출한다. 이 몇 개의 모델은 성남시와 성남문화재단의 자원 및 사업과의 연관성을 전제로 구성된다. 문화도시 구상 내에 있는 ‘사랑방 문화클럽 활성화 사업’, ‘우리 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마을축제 지원 사업’ 및 ‘예술 창작 지원 사업’ 등을 전제로 한 것이다.

- 이 연구에서 제시된 모델은 단계적 진화 모델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세 개의 모델은 장기적인 확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개발된 것이다. 분명하게 문화통화 모델은 주체의 의지라는 요소와 결합되어서만 실행모델 및 실행계획으로 전진할 수가 있다. 문화통화 모델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 및 정책 방향과의 조율 및 조정이 필수적이다. 말하자면 문화도시 플랜을 구체화하기 위해 각 사업의 역할과 성격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문화통화 모델과의 결합은 가능성으로만 존재할 수가 있다.

○ 문화통화 실행모델 및 실행계획 제시

- 문화통화의 활성화는 장기적 전망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문화통화는 법정통화에 익숙한 관행에 대한 도전이라는 측면에서 장기간의 이행과정을 전제하며, 새로운 관계 방식에 대한 주체의 내면화 과정을 통해 진화할 수밖에 없기에 기계적인 결합과정이 아닌 관계 형성 과정을 통해 진화할 수밖에 없는 사업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문화통화 모델의 장기 전망을 수립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다.

- 장기 전망의 수립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시범사업의 효과를 입증해나가는 일이 필수적이다. 즉 장기 전망의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재의 실행 의지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의미는 아주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연구는 현재의 실

행 의지를 전개해나가기 위해 구체적인 모델과 계획 수립이라는 과제에 집중한다.

- 따라서 핵심적인 연구 목적은 문화 통화 실행모델과 실행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실행을 가능하기 위해서는 의미 차원의 연구 결과를 뛰어넘어 판단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정, 자원, 조직 등의 요소가 명확해야 한다. 또한 실행의 효과성을 위해서는 일정, 자원, 조직 등의 요소 사이에 관계성이 전략적 판단에 의해 가능해질 수 있도록 실행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 연구는 성남문화재단의 입장에서 자원의 투입과 산출 효과가 명확하고 별도의 작업 없이 실행 기안이 가능한 정도 수준까지 결과를 구체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연구는 문화통화 발전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 외에 2007년도 시범사업에 적용 가능한 거래 품목 및 교환 형태를 도출하는 목표를 갖는다. 성남 문화재단이 '문화통화'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반 구축에 필요한 인력 및 자원, 문화통화 시범 사업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사업 조정 내역 및 투자액수, 통화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행정 협조 사항 등을 명시한다.

2-2 연구의 범위

○ 연구의 경과

- 이 연구를 위해 성남문화재단에서는 다음과 같이 문화통화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 성남문화통화 도입을 위한 지역 기관단체 간담회(2006. 5. 23)

참가인원: 6개 기관 11명

내용: 성남문화통화 도입에 대한 배경 설명과 의견 수렴

◦ 문화통화 선진지 연수(2006. 8. 22- 8. 26)

참가인원: 7개 기관단체 10명

내용: 일본의 지역통화 현장 탐방

◦ 문화예술인 실태조사(2006. 7- 2006. 9)

조사대상: 성남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 401명

조사내용: 문화예술 창작여건, 만족도, 저해요인, 지역 현안, 활동 실태 등

◦ 문화통화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개발(2006. 11. 1- 12. 30)

연구대상: 태평 4동 1318 해피존 문화통화 사업

연구내용: 나눔라디오(라디오 방송 만들기를 통한 문화통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 성남문화통화 도입을 위한 '문화정책 대화모임'(2007. 1. 31)

참여대상: 지역 문화예술 단체 및 연관 단체 40여명

논의내용: 시안으로 작성된 성남문화통화 모델에 대한 지역 의견 수렴

- 성남문화재단은 문화통화 도입을 위해 일련의 과정을 거쳐 오면서 지역 내에서 문화통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일본 연수 결과집을 발간하였다. 이 외에도 <성남시 사랑방 문화클럽 실태 및 욕구조사>(연구책임자: 안성아), <사랑방 문화클럽 발전방안 연구>(연구책임자: 전수환)의 연구조사사업을 통해 문화통화 도입을 위한 성남시의 주체적 조건에 대한 기본 자료를 발간한 바 있다.

- 이 연구는 성남문화재단에서 진행한 바 있는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와 사랑방 문화클럽 조사와 같은 연구조사사업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면서 실행 모델을 1차적으로 구축하여 성남의 문화예술단체 및 유관단체의 의견 조율 과정을 거쳐 실행 계획을 완성한 것이다.

○ 연구 방법과 범위

- 이 연구는 일차적으로 성남문화재단과의 몇 차례의 모임을 통해 성남문화재단에서 도입 가능한 모델에 대한 상을 점검하였다. 이 외에 연구진 모임을 통해 그 동안의 지역통화의 경험 내용을 분석하면서 문화재단과 지역통화의 결합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 이 과정에서 현재의 문화예술 지원방식의 문제를 공감하고 문화통화 방식의 구체적인 장점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문화재단과 지역통화의 결합 가능성을 위해 성남문화재단의 의지와 자원에 대한 인터뷰 및 공동회의를 실시하였다.

- 연구진에서는 문화통화 모델의 구체화를 위해 성남 지역의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와 사랑방 문화클럽 현황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추가적으로 문화예술단체, 사랑방 문화클럽, 지역통화 도입 사례, 성남문화재단의 사업계획 등을 점검하고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 연구진에서 개발된 몇 개의 모델에 대한 지역 유관기관 관련자들과의 ‘대화모임’ 외에도 성남문화재단 측과의 협의를 통해 세부 모델에 대한 운영 전략 판단을 공유하는 과정을 거쳤다.

- 이 결과로 이 연구에서는 1, 2장을 통해서 이 연구의 위상을 포지셔닝하고, 3장에서는 성남문화통화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도입을 위한 문화정책적 의미를 자리매김한다. 4장에서는 성남시의 주객관적 환경에 대한 분석을 자료와 인터뷰 결과를 정리하면서 검토하고, 5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실행모델과 실행계획을 3개의 모델에 따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성남문화통화 활성화를 위한 과제들을 정리하면서 문화재단의 역할과 추진방식을 제안한다.

3. 성남문화통화제의 이해

3-1 문화재단과 지역통화제도의 결합으로서의 문화통화의 성립가능성

○ 지역통화란?

- 지역통화는 법정통화 개념과 대비해 보면 그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다. 지역통화와 법정통화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구분	법정통화	지역통화
발행	중앙은행 또는 지방 정부가 인정하는 발행기관이 일정량 발행	시스템 참여자들이 거래시 필요에 따라 무한정 발행
사용지역	법정통용지역 (전국)	커뮤니티(일정지역) 범위 내
활용범위	시장거래 및 국가 상대 거래	가입회원 간의 거래
은행예치에 따른 이자	이자 발생 현금 가치의 저축	이자 없음 거래에 따른 관계의 저축
경제외적 의미	국가 시스템 유지 및 통제의 수단	공동체의 철학적 목표 달성 수단

표 1 법정통화와 지역통화의 차이

- 위 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지역통화는 일정 커뮤니티 내에서 관계성과 공동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혹은 시장경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행되는 회원제 통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통화의 일차적 의미는 공동체 내의 교환 거래와 회원 간 대면 접촉을 활성화한다는 의미에서 지역의 자원 유출을 방지하고 공동체를 가시화해가는 유효한 통화 시스템으로 자리잡아왔다.

- 구체적으로 지역통화는 사람들 사이의 신뢰에 기반한 네트워크 내에서 유무형의 재화가 교환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사회시장’의 한 유형을 구체화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해 커뮤니티 기반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나 공동체는 생활에 기초한 다양한 수요가 존재하며, 또 많은 수의 인재(지식, 기술, 경험)나 자연, 문화의 자원이 있다. 이것은 모두 ‘현장의 지식’으로서 흩어져 있다. 수요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를 ‘문제’라고 하면, 흩어져 있는 모든 정보 가운데 문제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해결을 위한 당사자들의 상호협력과 관계성을 창출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⁵⁾이 커뮤니티 해결책에 해당한다.

- 이 때 지역통화는 통화와 교환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면서 자본과 법정화폐가 가져오는 위험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자원에 기반한 실질적인 협력과 호혜적 교환에 근거하는

4) 김해보, [지역문화재단의 문화통화 도입 및 활용방안 연구- 서울문화통화를 중심으로], 추계예술대학교 예술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7쪽.

5) 마즈다 시 정책심의실, 앞의 자료, 33쪽.

교환, 사회활동을 촉진시킨다. 그렇기에 지역통화는 “시장경제에서는 평가되지 않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지역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거래대상으로 바꾸어 내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잠재되어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산출하는 힘을 이끌어내어 사람들의 생활에 여유로움을 가져다주는 가능성”⁶⁾을 가지고 있다.

- 따라서 지역통화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속성과 특징을 갖는다.⁷⁾
- 이자를 산출하지 않는다. 이식의 수단이 되지 않고 교환과 유통을 위해 사용된다.
- 일정한 지역(또는 범위)에서만 유통된다.
- 지역의(또는 과제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서 운영한다.

○ 지역통화의 유형

- 지역통화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1,000여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역통화는 레츠(LETS: local exchange and trading system) 제도인데, 이는 지역경제 침체에 대한 자구적 대응으로 시도되어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사용되고 있다⁸⁾.

- 지역통화의 유형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해볼 수 있다⁹⁾.

- LETS: 전 세계 지역통화의 대다수를 점하고 있으며 현금 사용 없이 장부 거래를 통해 상품과 서비스를 교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 Time Dollar: 일종의 시간 투입에 대한 자원봉사 개념으로 자원봉사 활동에 가치를 부여하고, 필요시에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자원봉사 은행 개념이다.

- local money와 community currency: 독자적인 화폐(종이, 칩, 전자머니)를 발행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유통하도록 고안된 화폐형 지역통화이다.

- 보완통화: 특정한 커뮤니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정화폐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발행된 통화를 말한다.

- 이 외에도 지역통화의 유형은 각 지역의 조건에 맞게 매우 유연하게 적용되고 있다. 다만 지역통화운동을 조망하는 관점은 크게 초점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은 주의를 필요로 한다. 논자에 따라서는 지역통화운동을 지역사회개발론적 관점과 생태주의 경제론 관점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 관점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볼 수 있다¹⁰⁾.

6) 위의 자료, 43쪽.

7) 위의 자료, 43쪽.

8) 지역통화의 전세계적 확산에 대해서는 김형용, 앞의 논문, 17-25쪽 참조.

9) 지역통화 유형은 마치다 시 정책심의실 자료의 46-48쪽과 김형용의 논문의 13-17쪽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 지역사회개발론적 관점: 현대 세계에서 지역사회의 자립적 구조가 불가능하게 전개됨에 따라 지역자원을 중심으로 지역의 자원 유출을 막고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지역통화를 인식하는 관점이다. 따라서 지역통화가 자립경제 시장을 창출하는 효과에 대한 강조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자존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재구조화를 시민레벨에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 생태주의 경제론 관점: 현대 세계의 위험의 배후에 있는 사회구조의 변화라는 문제의식에 기대어 좀더 근본적인 대안적 실천의 맥락에서 지역통화를 이해한다. 지역의 고유성에 대한 다양화를 촉진하고 국가 영향력을 최소화시키는 세계화와 국가주의에 대한 대안경제의 구성 맥락이 강조된다.

- 이와 같은 지역통화의 다양한 유형 및 종류는 지역통화의 본래적 의미에 대한 가치론적인 판단을 우회하면 지역통화의 창조적 적용의 가능성을 주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선행 사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바 지역통화의 문화통화로의 전환 가능성이나 지역통화 발행 주체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새롭게 주목할 수 있는 여지를 각 사례는 제공하고 있다.

○ 문화통화의 가능성

- 지역통화와 문화통화는 동일 수준의 비교 대상이 아니다. 일례로 교육통화의 사례를 보면 지역통화의 문제의식 내에서 '교육'과 관련된 기능을 거래 유통화하는 것을 교육통화 시스템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측면에서 문화통화는 지역통화의 일반적 유형을 '문화' 거래와 유통을 통해 구성하는 통화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문화통화의 가능성은 “기존의 일방적인 문화거래 방식보다 문화 거래에 있어서의 정보 비대칭성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방식이다. 아울러 예술인들의 사회 참여 확대와 이에 따른 문화예술에 대한 대중의 친밀감 증대라는 부가적인 효과도 가져올 수 있으며, 지역통화의 문화거래 등록 행위는 지역 내 문화 정보의 간접 제공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통화거래는 직간접적으로 주관적인 정보 비대칭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보의 비대칭성도 완화해 주는 효과가 있다. 또한 일부 현금 보조의 효과로 수요자의 실질적인 심리적 거래 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전반적인 문화거래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다”¹¹⁾.

- 다음의 표는 문화예술과 지역통화를 결합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를 정리한 표이다.

10) 김형용, 앞의 논문, 27-39쪽 참조.

11) 경기문화재단, 위의 보고서, 57쪽.

지역통화 도입을 통한 문화예술 분야의 기대 효과	문화예술 거래 도입을 통한 지역통화의 기대 효과
(1)문화예술 거래의 촉진 -문화향수를 위한 경제적, 심리적 장벽 완화 -문화예술 마케팅의 타겟 고객 확보 -문화예술에 대한 간접 지원 효과 -문화예술인의 실업 해소 효과	(1)커뮤니티 내 거래 활성화 품목 제공 -상품 시장 경제의 폐해가 없는 품목 -회원의 문화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매력적인 소비재
(2)문화생태계 육성 -문화예술 시장의 성장 기반 육성 -자원의 배분에 대한 지지 기반 육성 -문화예술에 대한 간접 지원 효과 -문화산업/마케팅 기반으로 활용 가능	(2)거래의 광역화에 적합한 품목 제공 -지역통화의 철학에 위배되지 않으면서도 광역 거래에 적합한 품목 -Inter-LETS 거래 시 환전 기준으로 적합한 품목
(3)네트워크를 통한 문화 자원 동원 -문화자원의 확충 효과 -지역간 문화 불균등 구조 개선	(3)거래 비용 충당 가능 -공공 문화예술 기관의 예산 활용
(4)공공 자원 배분에 대한 당위성 확보 -문화예술 예산 확보의 지지 기반 확대 -문화, 교육, 사회복지 정책의 시너지 효과로 공공 자원 배분의 정당성 부여 -소비자의 높은 참여도를 활용하여 대안적 지원 평가시스템으로 활용가능	
(5)문화민주주의 정책 과제 달성 -문화예술 참여 활성화 -교육, 복지 등 타 정책과의 연계 효과	
(6)문화복지 정책 과제 달성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문화소외층 확대에 대한 대응책 -전반적으로 높아진 문화복지 욕구충족 -문화예술인의 증진 복지 효과	
(7)문화재단의 새로운 정책 수단 제공 -독창적 사업 방식으로 재단 정체성 홍보 -현장과 가까운 사업 수행 방식	

12)

표 2 문화예술과 지역통화 간 제휴의 기대 효과

- 이 표에서 정리되었듯이, 문화재단의 문화통화 모델 도입은 문화통화 발행으로 인한 본래적 효과와 문화재단의 정책수단의 효율성 증진이라는 부가적 효과로 구분될 수 있다. 문화통화 도입은 창조, 매개, 향유의 선순환 구조를 증진하여 문화예술자원을 발굴하고 시민의 문화적 권리가 보장되는 문화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본래적 의미를 활성화할 수 있다.

12) 앞의 보고서, 72쪽.

- 현재 장르예술의 위기는 예술의 소통과 실현의 위기로 가시화되고 있다. 예술가들이 자신들만의 커뮤니티 내에서 활동하고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문화통화를 통해 문화예술 교육이나 복지활동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은 예술가들의 활동 기회를 사회적으로 확대하는 의미 외에도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입증해 나감으로써 문화예술 종사자들의 열악한 상태를 개선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 더 나아가 문화재단의 입장에서는 공공지원 모델에 대한 효과성을 높이고 평가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등의 부가적 효과를 통해 문화재단의 새로운 지원정책 모델로서 기능할 수가 있다. 결론적으로 “문화예술과 지역통화는 상호 보완을 통해 윈윈(Win-Win)할 수 있는 매력적인 제휴의 대상으로서 신설 문화재단의 정책 수단으로 적극 도입”¹³⁾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
- 문화통화의 성공적 활용이 정착되면 문화통화 운영 모델은 새로운 확장의 가능성을 열 수 있다. 문화통화 운영 모델은 사회정책 분야 내로 확대 가능하며, 도시 내에서 이러한 연계 구조가 확장되면 새로운 도시 모델을 정착시키는 주요한 매개로 기능할 수가 있다. 개념적인 수준에서 확장 가능한 모델을 구성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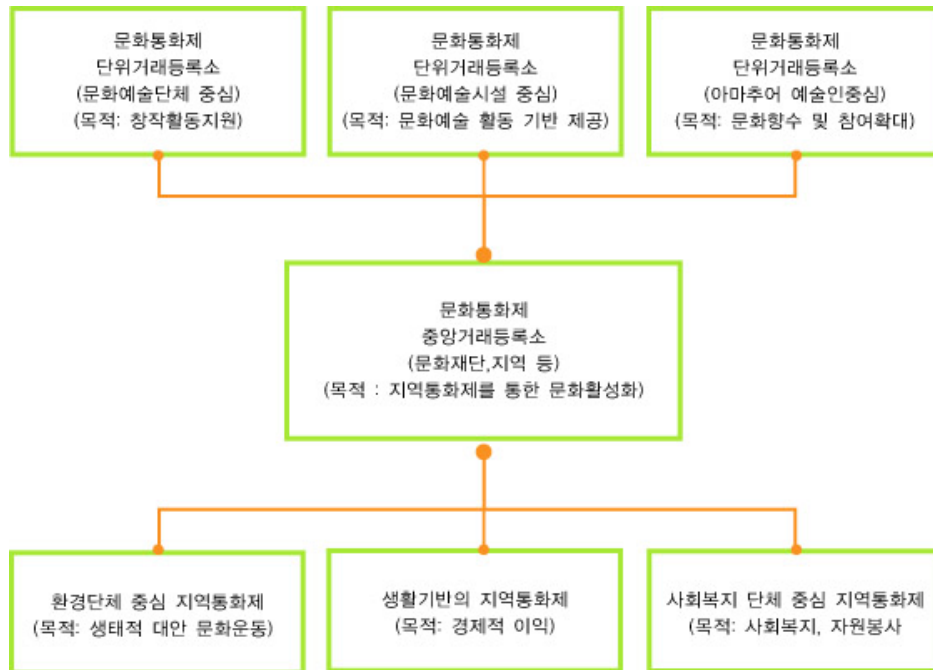


그림 8 문화통화제의 확장모델

- 위의 모델은 문화통화 모델이 확장되어 환경, 지역경제, 복지 차원의 연계 모델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위해서 구체적인 운영모델의 정립 및 성공적 정착이 매우 중요한 과제일 수 있다.

13) 경기문화재단, 72쪽.

3-2 지역통화 사례 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 도출

○ 국내 지역통화의 현황 분석

- 문화통화의 성공적 운영 모델 도출을 위해서는 그 간의 지역통화 경험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 지역통화 모델은 그 의미의 자체 충족성 때문에 많이 시도 되었지만, 일정한 규모와 지속성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사례는 국내의 경우 많지 않기 때문이다.

- 이러한 차원에서 지역통화 현황 분석을 통해 장애요인을 도출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 하는 것은 문화통화 운영 모델에 있어 핵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지역 내에서 지역통화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현황은 정확한 자료를 구하기 쉽지 않다. 다만 1999년에 조사한 연구 논문에 기초해서 개관적인 현황과 문제인식을 파악할 수 있다.

- 1999년 10월 기점의 자료에서 제시된 국내 지역통화 운영 사례는 다음과 같다.

지역통화제도명	운영단체	비고
미내사 FM	시민단체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	1998년 3월 운영시작. 회원수 447명. 월 교환거래 건수 10-20건
서초품앗이	서초구청	1999년 2월 운영시작. 회원수 283명. 월 교환거래 건수 3건 미만
대구 DN 지역통화	대구 중구청	1999년 4월 운영시작. 회원수 500명. 교환거래 건수 3건 미만
송파 품앗이	송파구청 자원봉사센터	1999년 8월 운영시작. 회원수 101명. 월 교환거래 10-20건
기술 도구 은행	봉천 10동 종합사회복지관	1999년 2월 운영시작. 회원수 339명. 월 교환거래 건수 10-20건
인디텔 레츠	인천지역정보네트워크 인디텔	1998년 5월 운영시작.
민들레 교육통화	교육관련 출판사 “민들레”	1999년 1월 운영시작. 회원 수 70여명. 14)
작아장터	녹색연합 출판사	1999년 3월 운영시작. 회원 수 60여명.

표 3 국내 사례 현황(1999년 10월 현재)

※ 기타 추진 중 : 열린 고양시민의 모임, 인천연대, 대전 빈들교회, 감리교농촌선교훈련원, 여수 동백 신협, 외국인 노동자 상담소, 인천 카톨릭 환경연대, 강서구청, 동작구청, 대전대학교, 서울대학교, 인하대학교, 과천시민연대 등 20여 단체

- 이 표에서 도출되는 바는 규모에 있어 500명 이내의 사례가 거의 대부분이다. 또한 거래 건수 역시도 많은 경우가 월 평균 10-20여건으로 조사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14) 김형용, 앞의 논문, 73쪽에서 인용.

운영 시기가 98년 내지 99년으로 조사되어 장기간의 실천 경험을 내재한 사례가 별반 없다는 것도 주의를 필요로 한다.

- 이미 LETS 통화의 경험에서도 입증되듯이 소규모의 지역통화 사례는 운영 효과에 비해 운영비용이 커지는 문제점이 크고, 이러한 문제점은 국내 사례에서도 반복되는 것으로 지역통화 유경험자들의 인터뷰에서 드러난다. 지역통화 운영 자체가 소규모의 인력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실무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지역통화가 소규모 공동체에서 효과적으로 시행은 되지만, 운영비용 때문에 지속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물론 지역통화의 내재적 의미가 인간 사이의 관계와 연계성을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운영비용의 문제를 큰 단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시스템을 효율화하고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실제적 방안을 찾는 것은 지역 통화의 성공 가능성에 매우 중요한 연구 과제가 될 수 있다.

○ 장애요인과 해결책

- 지역통화의 장애요인 도출을 위해서는 케이스 스터디의 결과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미내사 fm, 서초 품앗이, 송파 품앗이, 봉천 10동 기술도구은행의 4가지 사례를 심층분석한 김형용씨의 연구는 지역통화 제도의 장애요인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 이 연구에 따르면, 실제 교환거래가 성사되는 경우는 초기에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난다. 지역 주민들이 지역통화를 이해하는데 일차적인 어려움은 법정통화 사용습관으로부터의 단절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발견된다. “자신들이 마이너스부터 거래를 시작하기보다 저축해서 필요한 만큼 지역화폐를 모아둔 후에 필요 품목을 구입하겠다는 현금사용습관을 극복하지 못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통화의 대가성이 사상된 채 주는 사람은 단지 자원봉사 마인드만으로 접근하고, 받는 사람은 복지혜택과 같은 묘한 수치심과 거부감을 갖는 형태가 지속되었다”. 이러한 이해와 인식의 결여는 지역통화의 정착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 또한 사례 연구에서 거래 품목이 주로 교육서비스가 주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은 참여자들이 등록하고 있는 거래품목에 대한 구성비이다.

구입희망(N=70) 구성비(%)	품목	제공가능 (N=121) 구성비(%)
41.4	교육 및 교습서비스	32.2
20.0	전문서비스	12.4
20.0	가사서비스	11.6
14.3	단순노동서비스	19.8
12.9	주택 수리 서비스	9.1
12.9	식품	3.3
12.9	생활용품	4.1
8.6	의복	5.8
7.1	의료서비스	7.4
10.0	기타	15.7
160.0	계	121.5

15)

표 4 참여자들이 등록하고 있는 품목(다중응답)

- 이 표에서 드러나듯, 교육 및 교습서비스가 단연 압도적인 양상으로 드러난다. 이 양상은 참여자들이 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교육비를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에 관심이 많은 상황과 상관적이다. 내용적으로도 교육 서비스는 외국어 교습이 압도적이며, 피아노 및 예체능 교습의 내용이 주류를 차지한다.¹⁵⁾

- 또한 설문조사 결과는 교환거래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미내사 fm, 서초 품앗이, 송파 품앗이, 봉천10동 기술도구은행의 참여자 650여명으로 대상으로 하여 회수된 215부의 결과에서 교환거래를 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교환거래를 하지 않은 이유	N	구성비(%)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해서	52	37.1
교환거래의 절차가 번거러워서	11	7.9
필요한 품목/서비스를 구할 수 없어서	39	27.9
품목/서비스의 질이나 전문성을 믿지 못해서	15	10.7
제공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안심할 수 없어서	6	4.3
제공자가 너무 먼 지역에 있어서	14	10.0
지역화폐 가격이 맞지 않아서	3	2.1
계	140	100.0

17)

표 5 교환거래를 하지 않은 이유

15) 김형용, 앞의 논문, 89쪽에서 인용.

16) 이와 같은 내용은 외국의 지역통화 거래 내용과는 차별적인 것이다. 영국과 호주의 레츠 시스템에서는 생활용품과 가사서비스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재와 단순노동력 구입의 가격이 높아 재할용품의 사용 및 물물교환에 익숙할 뿐 아니라 이웃집 일 돕기 등 비공적 빈번한 이웃간 서비스 교환 문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습관이 우리나라 도시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직 익숙하지 않다. 그 대신 우리나라 현실에서 교습서비스는 이미 사교육비가 전체 생활비에서 일정 부분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많은 이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이다(김형용, 앞의 논문, 89-90쪽).

N= 210

응답 내용	응답자 수	구성비(%)
홍보 및 인식의 부족	134	63.8
이용 거래 품목의 부족	59	28.1
적은 회원수	25	11.9
등록 품목의 비전문성 또는 낮은 신뢰성	36	17.1
거래 상대방의 신뢰 정보 부족	75	35.7
거래 절차의 번거로움	20	9.5
거래 회원의 원거리 분산 분포	44	21.0
계	393	187.1

18)

표 6 지역통화제도의 장애요인에 대한 인식(다중응답)

- 크게 보자면 교환거래를 하지 않은 이유는 내용에 대한 인식 부족과 필요한 품목과 서비스의 제한, 신뢰의 제약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핵심적이다. 이 조사결과는 지역통화제도의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환경적 요건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된다.

-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염두에 두면 문화통화의 장애요인은 크게 몇 가지로 구별될 수 있다.

◦ 경험적 인식의 부재: 지역통화에 대한 이해 부족과 인식 부족 문제는 지역통화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이러한 이해 부족 문제는 주민들에게 익숙한 법정통화 사용 습관과의 차이에서 비롯되는데, 단순히 지역통화 자체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기 보다는 지역통화를 거래하면서 얻는 효과에 대한 경험적 인식의 부재라는 측면이 주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문화’라는 거래 아이템의 문제: 조사결과에서 주된 거래품목은 교육서비스와 가사서비스가 거래가 이루어지는 품목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문화통화 도입에 있어 문화와 예술이라는 거래 아이템은 그 자체로서는 특정 집단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을뿐 지역통화 자체 내에서 핵심적인 거래대상으로 자리잡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

◦ 서비스 품목의 제약: 지역통화는 제반 조건 상 특정 아이템과 서비스에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필요한 서비스와 교환가능한 서비스 사이의 편차가 일상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실제 필요에 기반한 서비스의 제약은 지역통화의 활성화에 큰 제약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통화제도의 의미와 장점을 인식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가능성이 제약됨으로 해서 지역통화의 장점이 현실화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절차의 번거로움: 지역통화는 주로 대면 거래 혹은 온라인 거래를 통해 이루어진다. 지

17) 김형용, 위의 논문, 97쪽에서 인용.

18) 김형용, 앞의 논문, 98쪽에서 인용.

역통화는 서비스의 가격을 정하고 그 거래내역을 기록하고 하는 장치를 가지기 마련인데, 지역통화의 거래 방식은 아주 번거로운 절차를 수반하게 된다. 지역통화의 장점과 절차의 번거로움은 서로 상충되는 효과를 발휘하면서 지역통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조건을 소규모로 한정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 지역 통화에 대한 신뢰 문제: 지역통화에 기반한 시장은 기본적으로 상호부조적, 상호호혜적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통화에 기초한 사회시장은 신뢰, 규범, 공동체의 형성 정도에 의존하게 된다. 이 경우 지역통화 발행 주체 및 지역통화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지 않으면 지역통화 시스템 구축은 큰 장애요인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 따라서 문화통화제를 도입하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장애요인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지역통화 모델을 초기적으로 도입하는 경우에는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운영 주체의 성립이 매우 중요하다. 문화통화제의 장애요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경험적 인식의 확대 방안: 초기 모델 구축에 있어 운영주체는 문화통화에 대한 홍보 및 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사용자의 입장에서 문화통화 거래방식에 대한 쉬운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사용 매뉴얼이 개발될 필요가 있으며, 초기 모델에서는 사용빈도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초기적인 홍보와 교육 이외에도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능동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시스템을 개선해나갈 수 있는 주체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 문화통화 도입에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지연되면 사용자의 입장에서 문화통화를 거래하는 의미를 축소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문화 관련 네트워크의 능동적 확충: 문화통화의 경우 현실적 차원에서 문화와 예술 관련한 사회적 필요가 상대적인 의미에서는 그리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통화 도입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는 문화예술인들의 조건 및 문화클럽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문화통화의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장기적으로는 주민과 시민 레벨에서 문화통화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통화의 거래가 일정 규모에서 진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초기 관련자 및 관련 거래품목에 대한 사전 조직화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운영 사무국은 문화 관련 네트워크를 능동적으로 확충하고 확장할 수 있는 활동력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 문화재단 자원의 능동적 활용: 성남문화통화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모델 구축에 필요한 자원에 대한 평가가 필수적이다. 현재 시점에서 판단하자면, 성남문화재단의 자원이 초기적인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성남문화재단의 지원 사업 및 문화도시 사업 등과의 연계지점을 확보하는 외에도 문화재단의 공간 및 인력, 데이터베이스 등이 능동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문화통화제 활성화에 있어 관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단 측의 능동적 의지를 바탕으로 재단 내부의 합의와 동의 과정을 조직

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성남시 차원에서 목표를 공유하는 작업이 아울러 진행되어야만 한다. 재단 내부의 의지가 조건에 따라 흔들리게 되면 문화통화 사업은 장기적인 과정을 설계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 재단의 신뢰 담보 역할: 문화통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뢰를 담보하고 규칙을 만들어가는 역할이 중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문화통화의 조직화에 있어 재단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자율적 주체가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신뢰 형성이 미진한 초기 단계에 있어서는 재단이 사업의 주관자로서 명확한 책임과 권한을 인식하는 것이 적절하다. 신뢰의 구축이란 장기적인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인 만큼, 초기의 공적 신뢰를 재단이 담보하는 방안은 문화통화제 도입을 위한 현실적인 판단일 수밖에 없다.

◦ 이념원칙과 현실원칙의 균형: 문화통화제도 시범 사업은 지역통화의 본래적 의미와 현실적 조건 내의 활용적 의미 사이에 충돌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장기적으로 문화통화의 기대 효과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제반 비용과 노력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문화통화의 이념원칙과 현실원칙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취하는 전략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이 전략적 원칙은 조건에 부응하면서도 조건을 새롭게 창출해가는 작업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예를 들면 문화통화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설계는 문화통화 본래의 지향적 의미와 충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법정통화와 문화통화의 병행 사용 등의 방침 역시도 이에 따른 거래의 축소나 통화의 축적 문제 등을 야기시킬 수 있다. 이 때 운영사무국은 이념원칙과 현실원칙 사이에 적절한 판단을 수행하고, 참여구성원들과 이러한 현실적 판단을 공유하는 과정을 설계해야 한다.

3-3 성남문화통화제 도입과 성남문화재단의 문예진흥 대상군/ 목표군/ 정책 영역 분석

- 성남문화재단의 2007년 주요사업은 ‘문화도시 성남시의 정체성 구축’, ‘지역문화예술 기초DB 구축’, ‘성남시민의 창작활동 진흥’,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 ‘문화통화기반시스템조성’, ‘시립박물관건립추진’, ‘책읽는 도시 만들기’, ‘책테마파크관련사업’이 있다. 이를 문예진흥 대상군별로 분리해보면 ‘문화예술인(단체) 지원’, ‘아마추어 동호인(단체) 지원’, ‘일반시민(청소년, 아동, 가족 등) 지원’으로 나뉘질 수 있다. 그리고 사업목표별로 정리해보면 ‘축제와 문화예술행사 활성화’, ‘문화공간운영 활성화’, ‘지역문화연구조사 활성화’로 나뉘질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상의 대상군별과 목표군별 분류를 ‘문화창조도시 성남 만들기’ 정도의 시문화정책 차원의 큰 범주로 통합하면서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의 문화적 쾌적성 향상’이라는 하위 범주를 두어 재구성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성남문화재단이 정책적 차원에서 고민해야할 문제이므로 여기에서는 2007년 재단의 계획된 사업들을 대상군별과 목표군별, 그리고 확장 범주에서 대상군별, 목표군별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의 영역들을 나열하고 각각이 성남문화통화제 운영과 어떤 연관이 있을 수 있는지 정도를 정리하는 정도에서 분석토록 한다.
 (* ‘+’는 통화 수입 발생, ‘-’는 지출 발생)

문예진흥 대상군/목표군별		활용 가능한 거점	거래 가능한 품목	재단 연계 가능 사업
대상군별	전문 문화예술인(단체) 중심	· 성남시 문화예술인(단체) · 성남문화재단 문화예술 지원 사업 수혜자(단체)	+ : 공연, 전시, 교육 통화 판매 - : 연습, 발표, 교육 공간 대관 - : 문화행사 홍보 서비스 통화 이용 - : 공연, 전시, 교육 등 문화행사 관람 및 참가	· 성남인의 창작활동 진흥사업 · 연습, 발표, 교육공간 대관사업 · 아트센터 공연과 전시 · 우리동네문화공동체 만들기
	아마추어/인터넷 문화예술 동호회 중심	· 성남문화클럽 등	+ : 공연, 전시, 교육 통화 판매 + : 문화예술행사 자원봉사 - : 발표회 준비를 위한 전문가 초청 워크숍 - : 공연, 전시 등 문화행사 관람 - : 연습, 발표, 교육 공간 대관 - : 문화행사 홍보 서비스 통화 이용	· 사랑방문화클럽활성화사업 · 연습, 발표, 교육공간 대관사업 · 우리동네문화공동체 만들기 · 아트센터 공연과 전시 · 마을축제 기획 운영
	성남시민(아동, 청소년, 가족 등)	· 성남시민 일반(상가번영회, 생협, 체육클럽, 대안학교 등)	+ : 문화예술행사 자원봉사 통화 판매 - : 공연, 전시, 교육 등 문화행사 관람 및 참가	· 우리동네문화공동체 만들기 · 아트센터 공연과 전시
목표군별	축제와 문화예술행사	· 아파트주민예술제 등	+ : 축제 내 통화활용 프로그램 참가권 판매 - : 문화행사 홍보 서비스 통화 이용 - : 자원봉사자 활용	· 우리동네문화공동체 만들기 · 사랑방문화클럽활성화사업 · 마을축제 기획 운영
	문화공간 운영	· 성남아트센터 등 · 청소년 회관, 복지관, 문화의 집 등	+ : 공연, 전시, 교육 통화 판매 + : 연습, 발표, 교육 공간 대관 통화 판매 - : 전문강사 수당, 공연 개런티 - : 문화행사 홍보 서비스 통화 이용 - : 자원봉사자 활용	· 우리동네문화공동체 만들기 · 사랑방문화클럽활성화사업
성	지역	· 공동육아, 대안교육단체,	+ : 자원봉사 제공, 강사파견	· 우리동네문화공동체 만들기

남 시 문 화 정 책	문화공동체 만들기	의료생협 등 · 성남의제21, 청년대학, 각 지역 생태교실 등	+ : 생필품과 단체 고유사업 통화 판매 - : 전문강사 수당, 공연 개런티 - : 공연, 전시 등 문화행사 관람 - : 연습, 발표, 교육 공간 대관 - : 행사 홍보 서비스 통화 이용	· 사랑방문화클럽활성화사업 · 마을축제 기획 운영
	지역의 문화적 쾌적성 향상	· 사회체육시설, 청소년시설, 놀이터, 책공원 등	+ : 각종 시설 관련 행사 참여 통화 판매 + : 연습, 발표, 교육 공간 대관 통화 판매 - : 전문강사 수당, 공연 개런티 - : 자원봉사자 활용 - : 행사 홍보 서비스 통화 이용	· 우리동네문화공동체 만들기 · 사랑방문화클럽활성화사업

표 7 성남문화통화제 도입과 성남문화재단의 문예진흥 대상군/ 목표군/ 정책영역 분석표

- 위 표를 보면 ‘거래 가능한 품목’ 중 가장 빈도수가 많이 나타나는 것은 ‘연습, 발표, 교육 공간 대관 통화’, ‘문화예술행사 홍보 통화’, ‘공연, 전시, 교육 등의 행사 통화’, 그리고 ‘문화예술행사 자원봉사 통화’의 순이다. 이는 ‘모임 연습 발표 공간의 필요’와 ‘질 높은 프로그램 제공’, ‘문화관련 행사 제공’, ‘커뮤니티 홍보’, ‘자원봉사적극참여’로 나타났던 문화예술인과 문화클럽의 요구와 욕구조사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재단연계가능사업 중 빈도수가 많은 것은 ‘우리동네문화공동체 만들기’, ‘사랑방문화클럽활성화사업’, ‘아트센터 공연과 전시’, 그리고 ‘마을축제기획운영’의 순으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서 재단이 초기에 제안하고 추진하면서 현실화 할 수 있는 문화통화제를 구상해볼 수 있는데, 즉 빈도수가 많은 사업들을 문화통화제와 연계 운영할 때 단기간 내 현실화될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3-4 성남문화통화제 도입의 기대효과

- 성남문화통화제 도입은 그동안 서울문화재단과 경기문화재단 등 광역 단위에서 검토되었던 문화정책적 실험으로서의 문화통화제를 현실화시켜낸 창조적 문화도시로 성남시의 이미지를 제고함은 물론이러니와 한정된 문화 재원으로 문화예술진흥의 주요 대상군이 되는 문화예술인, 동호회,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문화예술의 창작과 향유기회를 이전에 비해 보다 더 많이 갖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돈이란 교환경제사회에서 상품의 교환·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교환수단 내지 유통수단이라고 할 때, 문화와 예술처럼 정신적 가치의 영역에 해당하는 재화로 축적될 수 없는 서비스 영역의 교환과 유통을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교환 유통의 매개로서의 ‘통화제도’를 상정해볼 수도 있다. 현재 성남문화재단의 문화예술진흥지원금은 예술인이나 동호회로 곧장 현금으로 지원되고, 이 현금은 인건비, 재료구입, 공간대여 정도에서 문화서비스 영역에 잠시 머물렀다가, 그 밖의 소비재를 구매하는 데 사용되면서 문화서비스 영역의 교환 유통을 더 이상 일으키지 못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이에 비해 문화통화제를 도입 활용할 경우, 통화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용처를 일정정도 강제하는 문화통화제도의 성격상 성남 지역 문화예술 영역의 교환 유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당연히 기대해 볼

수 있게 된다. 3-3에서 분석 정리했던 틀을 이용하여 문화예술진흥 대상군, 목표군, 정책영역에 따라 각각의 기대효과를 예상해보면 아래 표와 같다.

문예진흥 대상군/목표군별		잠재회원	거래품목	기대효과
대상군별	전문 문화예술인(단체) 중심	· 성남시 문화예술인(단체) · 문화예술 관련 산업체 (무대장비, 인쇄, 기획사 등) · 문화시설 (극장, 전시장 등) · 회원 등 관객 · 문화거점지역 주변 상가	· 공연/전시 준비 및 공연/전시 · 모임 연습 발표 공간 · 개런티 · 자원봉사 · 행사 홍보 서비스 · 생필품, 식사, 뒤풀이 회식 등	· 창작지원 · 저소득 문화예술인에 대한 사회보장 · 지역사회 문화 공동체성 형성
	아마추어/인터넷 문화예술 동호회 중심	· 아마추어 동호회 · 전문 예술인, 소속 단체 · 연습실	· 공연/전시 준비 및 공연/전시 · 모임 연습 발표 공간 · 개런티 · 자원봉사 · 행사 홍보 서비스 · 생필품, 식사, 뒤풀이 회식 등	· 아마추어 예술활동지원 · 저소득 문화예술인에 대한 사회보장 ·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 지역사회 문화 공동체성 형성
	성남시민 (아동, 청소년, 가족 등)	· 성남시민 일반(상가번영회, 생협, 체육클럽, 청소년단체, 일반학교와 대안학교 등)	· 자원봉사 · 공연, 전시, 교육 등 문화행사 관람 및 참가 · 생필품, 식사, 뒤풀이 회식 등 · 모임 연습 발표 공간	· 시민 문화향유권 증대 ·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 지역 문화산업활성화와 문화예술시장 형성 · 지역사회 문화 공동체성 형성
목표군별	축제와 문화예술행사	· 축제 주최자: 조직위, 지역 등 · 축제 참가 예술단체 · 축제 참가 아마추어 단체 · 축제 참가 시민	· 축제 프로그램 참여 · 자원봉사 · 모임 연습 발표 공간 · 아마추어 공연 개런티 · 생필품, 식사, 뒤풀이 회식 등 · 행사 홍보 서비스	· 축제행사 참여도 제고 · 아마추어 예술활동지원 · 연례행사에 대한 고정관객 확보 · 문화통화 홍보 특별 행사로 활용
	문화공간 운영	· 문화시설 (극장, 전시장 등) · 일반 시민 · 예술가 · 문화시설 내 상업 시설	· 공연/전시 준비 및 공연/전시 · 모임 연습 발표 공간 · 개런티 · 생필품, 식사, 뒤풀이 회식 등	· 시민 문화향유권 증대 · 아마추어 예술활동지원 · 창작발표환경 개선
성남시민 문화정책	지역 문화공동체 만들기	· 지역 주민 · 지역 기업이나 상가(회) · 관련 협동조합 · 시민사회단체	· 협동조합 거래 · 지역 문화행사 · 자원봉사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 · 생필품, 식사, 뒤풀이 회식 등 · 시민사회단체의 문화 행사 또는 연계 행사	· 문화활동을 통한 공동체 회복 · 문화예술인 상호부조 및 사회보장 · 기존 유사통화 시스템을 연계하여 문화통화 거래 활성화
	지역의 문화적 쾌적성 향상	· 사회체육시설, 청소년시설, 놀이터, 책 공원 등 · 구민회관, 주민자치센터 등 · 지역 주민 · 전문 예술인, 소속 단체 · 아마추어 동호회	· 자원봉사 · 행사 홍보 서비스 · 문화예술교육 · 강사로, 관련 행사 개런티 · 생필품, 식사, 뒤풀이 회식 등 · 모임 연습 발표 공간	· 시민 문화향유권 증대 · 아마추어 활동 지원 ·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 지역 공동체 회복

표 8 문화예술진흥 대상군/ 목표군/ 정책영역에 따른 문화통화제 도입의 기대효과

3-5 성남문화통화제의 개요(안)과 운영원리(안)

3-5-1 성남문화통화제 개요(안)

- 지역통화 일반에 대한 이해와 문화통화의 정립가능성, 그리고 지역통화 활용현황과 수요분석, 그리고 문화통화제를 도입했을 때의 기대치로부터 성남문화통화제를 정착·활성화하기 위한 시스템과 운영방식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 먼저 성남문화통화제를 목적과 운영방식에 근거하여 정의해 보자면 ‘성남시의 문화예술진흥과 지역의 문화적 공동체성 회복을 목적으로 성남문화재단이 거래등록센터, 중계센터로서 운영하는 문화통화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실행단계에서 문화통화제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외적으로 ‘성남문화통화제 SeongNam Cultural Exchange Trading Systems’라는 정식명칭을 사용하면서 시민들에게 친숙한 애칭(또는 약칭)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애칭으로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도시, 성남19)’의 문화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생명의 물이 흐른다’라는 이미지를 이미지의 ‘새물’, ‘샘’, ‘숨’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리고 성남문화통화제 내에서 거래되는 화폐의 단위는 ‘물’과 대구가 될 수 있는 ‘구비’, ‘넘실’, ‘너울’, ‘섞’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 문화통화제 내에서 거래되는 화폐의 가치는 일반인들이 자칫 가질 수 있는 새로운 통화제는 사용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정화폐인 ‘₩원’의 가치와 연동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거래품목으로는 예술인, 문화클럽, 시민들의 문화예술향유 및 교육활동(창작과 발표, 향수, 교육 전반)을 위한 공간과 시설장비 임대 임차, 인력 사용, 인쇄, 재료구입, 문화예술프로그램(공연, 전시, 교육 등) 참여 등을 기본으로는 하면서 활성화를 고려해서 생필품 구입이나 식사, 뒤풀이 회식비 정도를 확장 사용처로 등록하고 차츰 의료, 체육, 먹거리 등의 건강서비스와 교통서비스로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서울문화재단의 지역통화 활용방안을 연구한 김해보씨의 논문의 틀을 참조하여 요약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항 목	개 요
시스템 명칭	-정식명칭 : 성남문화통화제(SeongNam Cultural Exchange Trading Systems) -애칭 : ‘새물’, ‘샘’, ‘숨’
화폐 단위	-성남문화통화 ‘구비’, ‘넘실’, ‘너울’ 또는 ‘섞’
운영 목적	-문화창조도시 성남시 만들기 -성남시의 문화예술 진흥과 지역의 문화적 공동체성 회복 · 우리동네문화공동체 만들기 / · 사랑방문화클럽활성화사업
세부 목적	-문화예술인 및 동호회의 문화예술 연습, 발표, 교육 공간의 안정적 확보와 지원 -문화예술행사 정보 제공 체제 구축 및 운영 활성화 -문화예술 자원봉사 기회 확대와 증진

19) 성남시의 경우, 시정방침으로 ‘미래’, ‘첨단’, 그리고 ‘문화’라는 세 개의 핵심 아젠다를 이끌어 가는 도시를 상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는 물이 없는 도시인만큼 오행의 조화를 상징하는 ‘물’의 이미지를 적극 차용하면서 필요가 있음. 실제로 ‘사람은 태어나면서 물과 가까이할 수 있는, 물과 친해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친수권(親水權)은 오늘날 도시를 설계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p>화폐가치 및 가격결정 거래 방식</p>	<p>-법정통화인 '원W'과 연동 -가격은 초기 서비스 제공자 호가 등록과 향후 실거래시 사용자와의 조정으로 결정 -인터넷 거래 / ARS 전화 거래 병행 / 향후 카드 거래로 확대</p>
<p>조직 구성</p>	<p style="text-align: center;"><1차년 모델></p> <p style="text-align: center;"><2차년 이후 모델></p>
<p>거래 등록 소</p>	<p>중앙거래등록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거래등록소는 성남문화재단 내 성남문화통화 사무국에서 운영 - 중앙거래등록소 주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거래등록 및 관리 시스템 운영 · 문화통화 홍보, 소식지 발간(웹진), 회원유치, 특별 행사 개최 · 성남문화통화 협의체 운영 · 문화통화 거래 활성화를 위한 사업개발 · 성남문화통화 사업 사례 연구 및 회원 교육 <p>단위거래등록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위거래등록소는 커뮤니티 단위별로 자발적으로 운영 - 성남문화통화 범용시스템을 이용, 웹사이트 내 커뮤니티로 거래등록소 운영 - 주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 등록 및 관리 · 홍보, 소식지 발간 · 회원 유치 및 회원 대상 특별 행사 개최 - 적정 규모 : 200~300명 회원, 1~2명 운영 요원
<p>계정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 등록 시 id와 고유번호 발급(단체 고유 id와 개인 id 구분 발급) - 시범사업기간동안은 ARS와 인터넷 계정으로만 관리하고 향후 확산 정도에 따라 카드 연동제 고려.
<p>주 거래 품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마추어, 전문예술인의 창작 활동 관련 품목 : 장소 및 장비 임대, 개런티, 인쇄비, 공연 기획비, 재료비, 식비, 뒤풀이비 등

	-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활동 관련 품목 : 입장권, 문화예술교육, 마을축제 등 * 성남시 문화행정서비스 : 문화복지, 사회복지 관련 행정 서비스 * 향후 일반시장에서 거래되는 기타 재화 및 서비스로 확대
통용 지역	- 성남 지역 내
현금 환전	- 현금 환전은 원칙적으로 없는 것으로 하되, 초기 사용진작을 위해서 한시적 활용을 고려해볼 수 있음.

표 9 성남문화통화제 개요

3-5-2 운영원리(안)

- 성남문화재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성남문화통화 사무국, 즉 중앙거래등록소에서는 거래등록시스템을 구축하고 본 사업을 총괄 운영한다. 사무국에는 팀장급 사무국장과 전산시스템을 개발 관리할 전문가 1인, 교육과 연구업무를 담당할 전문 연구자 1인, 그리고 각종 제휴 업무와 홍보업무를 지원하는 1명의 인력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무국장이 간사 역할을 겸하는 문화통화운영위원회는 사무국, 전문문화예술인(단체), 동호회, 시민, 성남시 관계자가 참여하여 성남문화통화 운영 전반에 걸친 사항을 협의한다. 2차년부터 시행해볼 수 있는 커뮤니티 단위 통화제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단위거래등록소에서는 커뮤니티 회원 200명을 기준으로 ‘거래 등록 및 관리’, ‘홍보, 소식지 발간’, ‘회원 유치 및 회원 대상 특별 행사 개최’ 업무를 담당할 1~2인의 전담 인력을 둘 수 있다.

- 성남문화통화의 기본적인 거래방식은 인터넷 거래를 중심으로 하되, 시스템이 정착될 때까지는 ARS전화 거래를 병행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문화예술영역에서 의료와 체육, 먹거리 서비스 등 성남시 사회시장 전반으로 확장 운영할 것을 염두에 두면서 카드 거래로 확대 운영해야 한다. 회원의 계정관리는 처음 회원 등록 시에 고유id와 번호를 발급하되, 문화예술 단체의 고유id와 개인id 구분 발급하면서 재단과 단체 간 거래, 재단과 개인 간 거래를 구분하여 전체 통화량을 조정 운영토록 한다. 차후에는 개인 간 이해관계와 관심사에 따라 소규모 커뮤니티를 결성하면 단체 고유id가 생성될 수 있도록 한다.

- 1차년에는 문화통화제에 대한 일반의 이해를 넓히는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문화클럽활성화 사업’을 중심으로 통화를 운영토록 하고, 2차년부터는 재단이 주도하는 문화통화운영 사무국은 중앙거래등록소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커뮤니티 단위의 단위거래등록소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확장해갈 수 있도록 한다. 즉 200~300명 규모의 회원이 있는 커뮤니티들이 단위거래등록소를 스스로 운영토록 하고 중앙거래등록소에서는 이들 단위거래등록소 간의 거래를 매개하면 된다. 이를 위해 시범사업 초기에는 재단이 문화통화제 운영을 주도하면서 규모가 크고 통화 거래가 잦으며 상호 시너지가 있는 몇 개의 커뮤니티를 연결하면서 단위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기존의 생활협동조합이나 공동육아 등 마을 단위의 공동체회복이나 생태환경 단체들을 발굴 지원하는 방식으로 문화통화거래 거점(Node)으로 단위거래등록소를 확보해 가야 한다. 물론 이 과정은 커뮤니티나 공동체들의 자발성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주요거래품목으로는 문화예술인과 문화클럽의 요구와 욕구조사 결과와 거래 예측에 따라 ‘연습, 발표, 교육 공간 대관’, ‘문화예술행사 홍보’, ‘공연, 전시, 교육 등의 행사 준비 및 참여’, 그리고 ‘문화예술행사 자원봉사’로 통화 영역을 구분한다. 각각의 세부품목으로는 아마추어, 전문예술인의 창작 활동 관련 품목으로 장소 및 장비 임대, 개런티, 인쇄비, 공연 기획비, 재료비, 식비, 뒤편이비 등을 들 수 있으며,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활동 관련 품목으로는 행사자원봉사, 입장권, 문화예술교육, 마을축제 참가 등이 있다. 그리고 향후 성남시 문화행정서비스 일반의 품목으로 문화복지, 사회복지 관련 행정 서비스와 일반시장에서 거래되는 기타 재화 및 서비스 일반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다.

3-6 국내외 관련 사례²⁰⁾

3-6-1 지역통화의 유형

- 지역통화는 거래형태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나뉘질 수 있다. 첫째 거래당사자간의 신뢰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레츠(LETS)가 대표적인데, 캐나다, 호주, 그리고 영국의 렛츠와 네덜란드의 노프스(Noppes) 등이 있다. 두 번째는 지역에서 통용되는 화폐를 직접 발행하는 인허가 시스템(fiat system)으로 뉴욕 이타카 지역의 아워즈 시스템(hours system)이 대표적이다.(아워즈 시스템에서는 1시간 10달러)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역사회 서비스 은행 형태의 지역통화체제로 대표적인 사례가 타임달러이다.

3-6-2 지역통화의 운영 현황

- 호주

· 1990년대 초 34개에서 현재 200여개로 확장되었으며, 전체 레츠(LETS)의 83%가 개인, 17%가 단체에 의해 설립되었다. 그 중 많은 숫자가 정부기관에 의해 설립됨. 레츠 창시자 마이클 린튼은 “주의회는 구민회관(Community center)에 레츠 시스템을 세우고 보조금을 지급”하며 녹색 달러 개념의 통화 운동을 벌이고 있는 콜린 윌리엄스는 “호주에 있어서 레츠의 발전을 촉진시킨 것은 주정부였다”고 한다.

- 영국

· 1992년 5개의 시스템에서 1994년 말 약 275개, 96년 말 350개 이상, 현재는 약 600여 개가 활동하고 있다. 웨스트 요크셔의 ‘칼더데일 레츠’의 경우 회원들의 69%가 가정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였고, 43%가 상품구매, 24%가 교육을 받았으며, 17%가 사업에 사용한다. 이 비율은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하다. 초기에 중산층의 녹색주의자들이 대부분이었으나 점차 더 넓은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사실상 저임금 계층을 끌

20) 미내사 홈페이지(<http://www.herenow.co.kr>)와 <공동선> 통권 제36호 1~2월호(윤홍순), 경기문화재단의 논문(10-18쪽) 그리고 박해보의 논문(20-25쪽)에 실린 지역통화 관련 글을 발췌 정리하였다.

어들이고 있다. 영국과 호주의 레츠 이용자 1/3 이상이 실업자이며 뉴질랜드의 경우는 40%까지 이르고 있다.

- 미국

· 30개 주에 200여 개가 운영되는 에드가 칸(타임달러연구소 회장)의 ‘타임달러’, 뉴욕 이타카 지역에서 폴 그로버가 창안한 ‘아워즈’가 운영 중에 있다. 뉴욕의 이타카 머니는 1시간HOUR을 10달러의 가치로 환산하여 운영한다. 이타카 머니로 수도관 공사, 목수일 전기수리 등 수천가지의 상품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개의 대규모 식료품점에서, 40개의 농수산 시장에서도 사용된다. 상공회의소와 250개의 다른 사업장에서 이타카 머니가 사용되고 있다. 또 이타카 머니 리스트에 등록되지 않은 수백 명이 HOUR를 벌고 소비한다. 이곳의 거주자들은 자신이 즐기는 일을 통해 수입을 얻는 것에 기쁨을 느끼고 있으며 자랑스러워하고 이타카 머니 동료로서 서로를 대한다. 이타카 지역이 소유하고 있는 상점은 다른 곳 보다 더 커다란 소비력과 판매력을 과시하고 있다. 그리고 5,500달러에 해당하는 이타카 머니를 25개 지역 단체들에게 기부했다. 이들은 서로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새로운 방법을 발견했다. 이는 수입대체효과가 있었다.

- 한국

· 대표적으로 미내사의 ‘fm시스템’과 광명의 ‘그루’, 대전의 ‘두루’ 등이 있다. 1996년부터 환경관련 저널 “녹색평론” 등을 통해서 국내에 소개되던 지역통화운동제는 1998년 3월 뉴에이지과학 민간단체인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약칭 미내사)에서 단 10명의 가입자로 미래통화 “fm시스템”을 출범시킨 것이 시초이다. 이 때부터 국내 사회단체들의 관심을 얻게 된 지역통화운동은 빠르게 진행되어 1999년 초반기에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한국도시연구소를 비롯한 연구기관 연구원들과 불교환경교육원, 민들레 출판사, 녹색연합, 녹색교통, 유네스코, YMCA 녹색가게 활동가들의 참석 하에 지역통화운동실천모임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대전에서는 1999년 10월에 박용남(대전의제21추진협의회 사무처장)씨가 시스템을 기획하고 대전 지역통화시스템의 이름을 ‘한발레즈’로, 공동체 화폐명은 ‘두루’로 지은 후 회원가입을 받기 시작, 2000년 2월에 정식 출범하였다. 한발레즈는 2002년 8월 말 320여명의 회원과 월 150여건의 거래가 이루어진 이래로 거래자와 거래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현재 1명의 시스템 관리자와 10명의 운영위원이 있다.

4. 성남문화통화 도입을 위한 문화예술 환경 분석

4-1 성남문화재단의 자원 분석

○ 성남시 문화환경 개요

- 성남시는 한국사회에서 대표적으로 이주를 통해 형성된 도시이다. 1970년대 초반의 서울시 빈민층들의 이주를 시작으로, 분당 신도시 개발을 통해 인구가 대거 유입되었고, 현재 판교 신도시 개발을 통해 수도권 인구 분산 정책이 시도되고 있기도 하다.

- 현재 성남시는 인구 100만을 넘어서고 있으며, 판교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인구가 대폭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성남시는 재정자립도가 87.6%로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도시이며, 전국적으로도 단연 수위권이다. 성남시는 높은 재정자립도를 바탕으로 대규모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최근 문화 관련 투자가 성남아트센터 개관 등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성남시는 급격한 인구 유입과 도시의 확장으로 인해 공통의 지역적 특징을 결여하고 있으며, 구도시와 신도시 사이의 생활 수준과 정서적 격차가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성남시는 도시 내적인 갈등과 격차에 대한 문화적 해결책을 도출해야 할 필요성에 당면하고 있으며, 최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화도시 구상을 본격화하고 있다.

- 성남시의 문화예술 환경은 지역의 거점도시들에 비해 인프라의 측면에서 열악한 상태에 있으며, 활동 내용의 측면에서도 초기적인 문화정책의 수립 단계에 있다. 2005년 성남아트센터의 개관과 2006년 책 테마파크의 완공은 성남의 문화 인프라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성남아트센터의 경우 전국적 특성화 전략으로 단기간에 주요 공연장으로 자리매김하였으나, 공연에 비해 타 활동은 아직 구체화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민의 문화적 욕구 및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문화정책을 능동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성남문화재단의 구성과 지향

- 성남문화재단의 설립은 성남의 문화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라고 할 수 있다. 성남문화재단은 성남아트센터 운영을 중심으로 하는 공연기획 부서와 성남시의 문예진흥 및 문화도시 사업을 담당하는 문화사업 부서로 이원화되어 있다.

- 성남문화재단의 문화정책은 기초 실태조사 및 분야별 TF의 구성을 통해 본격화되고 있는데, 재단의 사업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 있다²¹⁾.

- 시민 모두가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는 문화기반 마련
- 성남의 문화다양화를 위한 문화컨텐츠 개발
- 시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을 드높이는 문화복지공동체 구현
- 세계 속 문화도시로서의 성남시 위상 제고

- 문화공동체 구현과 문화도시화를 위한 실천 사업은 크게 5대 정책과제로 구체화되어 있다. 5대 정책과제는 ‘문화도시 성남 정체성 구현’, ‘시민창작활동 진흥’, ‘문화예술동호회 네트워크 구축’, ‘문화공동체 만들기’, ‘문화통화, 문화나눔’으로 설정된 바 있다. 문화재단에서는 이 실천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전문가와 활동가 네트워크인 정책실천 TF를 구성하여 지역과 전문성을 결합시키는 추진 방식을 구체화하고 있다²²⁾.

21) <http://www.snart.or.kr> 에서 인용

22) <http://www.snart.or.kr> 에서 인용.

○ 성남 문화도시만들기 5대 사업의 연관관계

- 성남시의 문화정책 구상은 5대 사업의 연관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아래의 문화정책 개념도는 이러한 기본방향과 실천사업 사이의 연관성과 지향을 표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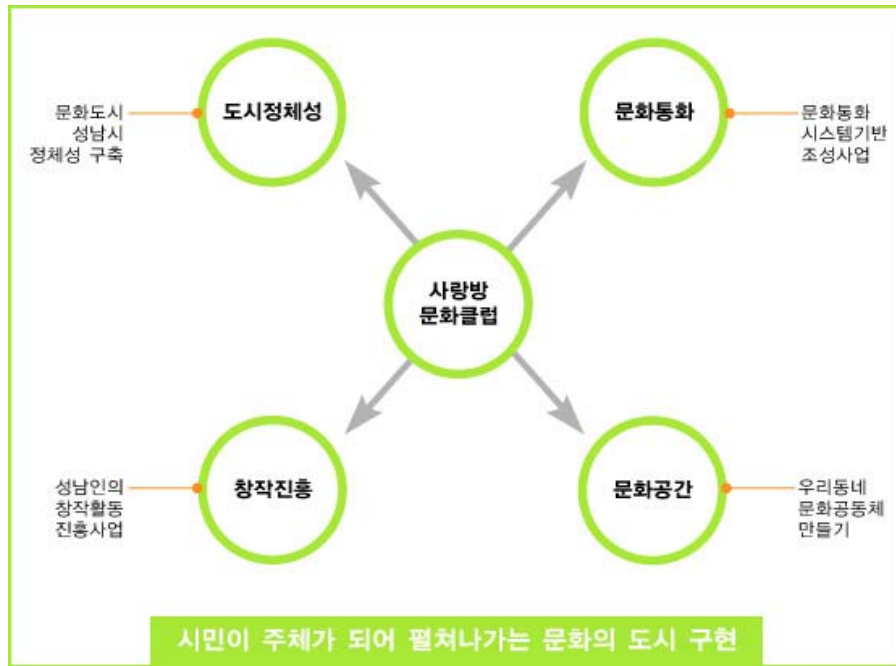


그림 3 성남시 문화정책 수립 개념도

- 이 사업들은 2006년도에 이어 2007년도 사업예산으로 반영되어 있는데, 각 사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²³⁾.

- 성남인의 창작활동 진흥 사업(280,000천원)
 - <퍼포밍아트 공모, 창작, 공연 지원 사업>
 - 창작 희곡을 공모하여 1작품을 제작하여 공연하는 사업
 - <성남시화 갤러리 창작, 전시 지원 사업>
 - 두 지역을 선정하여 지역 특성을 살린 예술창작물에 대한 지원 사업
 - <영화제 속의 영화제>
 - 영화제 화제작 감상 기회 마련, 청소년과 시민의 영화 창작 진흥

23) 이 내용은 2007년도 세출예산서와 성남문화재단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재구성한 것이다.

- 사랑방 문화클럽 네트워크 구축 사업(300,000천원)
 - <웹 네트워크 구축과 활성화>
 - 체계적 구축 및 문화클럽 간 소통을 위한 웹기반 구축
 - <문화클럽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 지원 대상 선정, 워크숍 진행, 클럽 파티 등을 진행하여 사례화하는 사업

-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200,000천원)
 - <아파트 문화환경 개선 사업>
 - 아파트 문화 상징 개발 및 주민 전시회
 - <공단 문화환경 개선 사업>
 - 공단 지역의 문화 상징 개발 및 공단 내 전시회 개최
 - <동 단위 문화축제 지원 및 실무자 워크숍>
 - 동네 축제 만들기에 대한 지원 사업 및 실무 지원 사업

○ 문화통화 도입을 위한 자원 분석

- 성남문화재단의 사업은 개념적으로 문화예술 커뮤니티의 창조적 활동을 바탕으로 문화도시의 정체성을 구현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문화통화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문화통화 사업은 5대 정책과제와의 연관 속에서 그 위상을 찾을 수 있다. 크게 보면 한 축에서는 문화도시의 정체성을 구현하는 제도적 기반이면서, 다른 한 축에서 보면 '창작활동 진흥사업', '사랑방 문화클럽 네트워크 구축',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라는 구체적인 사업 영역과 결합하면서 문화도시의 실체를 구성해가는 위상을 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먼저 문화통화와 '창작활동 진흥사업'과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화통화와 창작활동진흥사업과의 연계는 재단의 입장에서 예산 지원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거래내역을 통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예술인들에 대한 예산 지원의 일부를 문화통화로 지급한다.
- 초기에는 창작공간 및 연습공간에서 문화통화를 사용하는 방식이 현실성이 있다.
- 장기적으로 문화통화의 사용처가 늘어나면 문화통화 지급 비율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 실제로 다양한 공간의 확보 및 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는 시범적인 케이스 스터디의 형태로 도입할 수 있다.
- 문화재단에서 추진 중인 커뮤니티 센터 오픈 시점에서 문화통화와의 연계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
- 2007년도 사업에서는 <성남시화 갤러리 창작, 전시 지원사업>에서 시범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정도가 고려될 수 있다.

◦ 올해 사업에서는 희망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하되 사용자에게 대한 인센티브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 사랑방 문화클럽 네트워크 사업과의 연관성은 다음과 같다. 문화통화의 활용은 재단의 아마추어 지원 모델을 확립할 수 있고, 커뮤니티 내부와 커뮤니티 간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문화클럽의 자체 활동에 필요한 공간 및 전략적인 거래처를 확보한다.
- 문화클럽의 활동의 질을 높이고 발표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예술가 리스트, 문화활동 가능 리스트 등을 제공한다.
- 문화클럽의 활동 여부와 거래 실적에 따라 문화클럽 지원금을 문화통화로 지급한다.
- 문화클럽 간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성남문화재단의 축제 및 성남시 기관들의 활동들과 연계해나간다.
- 문화통화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할인 및 쿠폰제도와 병행)
- 클럽 파티 등을 통해 문화통화 거래를 시범적으로 연계하고 클럽 간 통화 거래빈도가 높은 경우에는 일정한 시상제도를 마련한다.

-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과의 연관성은 다음과 같다. 문화재단의 입장에서는 지역 커뮤니티 기반의 문화통화 모델을 수립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지역 단위의 환전소를 설치하고 사업비 중 일부를 문화통화로 지급한다.
- 지역 내의 호혜적 활동 및 자원봉사 활동 등에 대해 문화통화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고, 이 문화통화를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래처를 발굴한다.
- 지역 기반의 문화예술교육 서비스 및 여타 활동과의 연계를 위해 거래품목을 다양화한다.
- 성남문화재단의 동네 축제 지원사업과 연계한다.
- 2007년도의 경우 지역자치활동의 경험이 있는 동네를 선정하여 시범사업의 형태로 진행한다.
- 사업 대상 선정 시 문화통화 사용 계획 등을 선정에서 고려한다.

- 성남문화재단의 준비 정도와 사업 성격에 대한 판단을 통해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문화통화 사용을 활성화하되, 1차년 도에서는 문화통화 운영을 조직화하기 위한 장애요인 도출과 해결 방안 모색이라는 차원에서 시범사업의 형태로 진행한다. 다만 문화클럽 지원사업의 경우 전략적으로 문화통화와의 직접적 연계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2 성남시의 주체적 조건 분석

○ 성남시의 문화예술자원 현황

- 한 도시의 문화자원은 크게 문화시설 및 공간, 인력 등을 포함하는 문화자원, 문화행사 및 프로그램, 문화예술지원체계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시설과 공간은 문화예술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라고 할 수 있고, 인력 및 프로그램은 휴먼웨어와 소프트웨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 성남시의 문화예술 자원 현황은 다음의 표에 제시되어 있다²⁴⁾.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지표 내용	주요내용	갯수
문화시설 및 공간	문화예술 시설	공연시설	아트센터, 시민회관 등	5
		문화예술전수시설	성남문화원	1
		전시시설	전시관, 박물관 등	8
		정보제공시설	도서관, 문화정보센터	5
		지역문화복지시설	문화의집, 복지관	9
		청소년시설	청소년수련관	2
	체육시설	체육시설	운동장, 경기장, 스포츠센터	11
	휴양여가 시설	휴양여가시설	공원, 유원지	17
문화교육 시설	문화교육시설	사설예체능학원, 사회/평생교육원	-	
문화자원	문화인력	문화인력	전문예술인력, 문화활동지원인력, 문화교습인력, 문화예술단체/동호인회	-
	문화유산	문화재, 지역문화유산	기념물, 유·무형문화재, 보물, 향토유적	32
문화행사 및 프로그램	문화행사	문화예술제	예술제, 민속놀이, 축제, 문화재 등	14
	문화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유형	예술/건강/취미/학습/전통/기타	-
문화지원 체계	문화지원 제도와 문화재정	문화예술관련 지원	문화활동지원건수 및 지원액 규모	115개, 893백만원
		문화예산규모	일반회계 예산 대비 문화예산	-

표 10 성남 문화예술 자원 현황

* 문화교육시설, 문화프로그램, 문화예산규모는 제외.

* 문화예술관련지원(2005년도 기준): 성남예총, 문화예술발전기금, 학교우수특기부 지원 포함.

- 앞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문화예술시설은 30여 곳, 문화행사는 14 건, 문화예술지원 규모는 115개 사업에 893백만원(시 지원 기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 문화통화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지점은 문화자원을 네트워크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

24) 성남문화재단, [2006 성남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16쪽에서 재인용.

있다. 현실적으로 파악할 때 가장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현황 파악을 토대로 기존 공간을 네트워크화해서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공간 네트워크 구축은 기존의 공간을 문화예술적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분석될 필요가 있다. 특히 공적인 공간을 네트워크하는 작업과 사적 공간을 공적으로 연계시키는 차원이 병행되면 공간의 활용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성남시의 공간 현황을 문화통화 활용 가능성과 관련해서 파악해보면,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누어질 수 있다²⁵⁾.

◦ 성남문화재단 자체 공간

◦ 성남시 문화관련 공간

성남시민회관, 수정문화정보센터, 청소년문화의 집, 수정청소년수련관, 중앙문화정보센터, 분당서현 청소년수련관, 분당문화정보센터, 분당정자 청소년수련관 등

◦ 공적 시설

시청 및 구청,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복지관 및 아동복지센터, 대학 및 학교 시설, 교회 및 종교시설 등

◦ 문화예술 사적 공간

사회단체 시설(YMCA 등), 문화예술단체 공간, 개인 스튜디오, 공동작업실, 각종 문화예술 관련 학원시설 등

◦ 기타 공간

마사회, 토지공사, 은행 등의 기간시설

○ 성남시의 문화예술인 현황

- <2006 성남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성남시의 문화예술인은 약 20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장르별로는 문학(4.5%), 미술(14.8%), 사진(9.2%), 국악(19.2%), 음악(30.9%), 연극(3.5%), 무용(14.2%), 영화(1%), 대중예술(2.7%)로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예술 매개 활동 관련해서는 미진한 조사 결과이지만, 일단 문화예술 전문가들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는 유의미하다.

- 문화통화 도입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응답 결과는 봉사활동 참여 경험과 참여 의사가 아주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문화예술관련 사회봉사 활동에서 '현재 하고 있

25) 공간에 대한 범주화는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공간 조사 및 사랑방 문화클럽 활동 가능 공간 분석 (성남문화재단, [2006 성남 문화예술인 실태 조사], 50-53쪽; 성남문화재단, [사랑방 문화클럽 발전 방안 연구], 2006, 56쪽) 결과를 재구성한 것이다.

다’(49%)와 과거에 한 적 있다’(30.9%)로 응답 결과가 나왔으며, 참여 의사와 관련해서는 ‘가능하면 하겠다’(86.7%), ‘반드시 하겠다’(9.2%)로 응답하여 전체 98.7%라는 절대 다수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참여할 의사가 있는 활동 내역에 대해서는 ‘복지시설 문화예술공연 봉사’(36.7%), ‘문화예술교육’(25.5%),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24.7%), ‘지역동호회 클럽 지원’(11%)로 제시되었다²⁶⁾. 또한 문화예술교환 시스템 참여 의사와 관련해서는 96.5%가 참여할 의사를 가지고 있고, 문화예술교육 강사 참여의사도 거의 비슷한 94.7%가 참여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 이러한 조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문화통화 도입시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할 잠재적 가능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특히 주민과의 거리 극복이나 지역공동체 의식 향상을 위해 문화예술교환시스템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은 문화통화의 도입 취지에 근접한 것으로 향후 시스템 설계에서 고려할 가치가 충분하다.

○ 문화예술단체

- 성남시의 문화예술단체는 현재 문화종합 6곳을 포함하여 총 206개의 단체가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장르별로는 문학(13), 국악(39), 음악(68), 사진(15), 연극(6), 미술(26), 영화(4), 대중예술(6), 무용(23)으로 분포되어 있다. 또 성남의 문화예술인들은 크게 예총에 약 2000여명, 민예총에 100여명이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은 성남 문화예술단체 현황을 보여주는 조사결과이다²⁷⁾.

분야	갯수	분야	갯수
문화종합	6	연극	6
문학	13	미술	26
국악	39	영화	4
음악	69	대중예술	6
사진	15	무용	23
총계	206		

표 11 성남문화예술단체 현황

- 문화통화 관련해서 단체의 중요성은 문화통화에 소속 회원의 참여라는 차원 외에도 문화통화의 매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소속 회원들에 대한 홍보 및 참여 권유 및 가능한 문화예술관련 서비스 파악 차원의 정보 매개 기능, 일부에 한정되지만 자체 공간 운영 등을 하고 있는 단체의 경우 시민과 문화클럽과의 상호 문화통화 교환을 활성화할 수 있는 자원 매개 기능, 나아가 문화통화 운영에서 성남문화재단과의 협업과 네트워크 구성 등 운영 매개 기능 등을 수행할 수 있다.

- 성남 문화재단이 기획하고 있는 문화도시 5대 사업의 성공 여부는 도시 내의 문화예술 순환 시스템을 확장하려는 문화예술인과 시민의 참여와 변화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

26) 성남문화재단, [2006 성남 문화예술인 실태 조사], XVI-XVII쪽 참조.

27) 성남문화재단, [2006 성남 문화예술인 실태 조사], 17쪽에서 재인용.

다. 이러한 측면에서 문화통화는 참여와 변화를 위한 시스템으로 기능해야 하는데, 이때 단체들이 사업 취지에 동의하고 서로의 성과를 공유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단체와의 협업 시스템 구축은 문화통화 활성화를 위한 핵심적 조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 문화클럽

- 문화클럽은 커뮤니티 형태의 모임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일종의 동아리 모임으로 2006년 성남문화재단의 조사에서는 총 319개의 문화클럽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이 결과 문화클럽의 성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²⁸⁾.

커뮤니티 성격	도수	비율	유효비율
전문가들의 모임	30	9.4	9.4
전문성을 갖추려고 배우는 모임	62	19.4	19.4
취미로 배우는 모임	98	30.6	30.7
취미를 공유하는 친목모임	107	33.4	33.5
기타	22	6.9	6.9
총	319	99.7	100

표 12 커뮤니티의 성격

- 이 조사결과를 보면 전문가 모임 및 전문가 지향 모임의 숫자는 92개로 파악되고 있으며, 취미와 친목 성격의 모임이 나머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커뮤니티의 성격을 유형별 활동 특성을 교차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²⁹⁾.

커뮤니티 성격	배움클럽	공헌클럽	숙련클럽	친목클럽	총
전문가들의 모임	2(2.9)	20(19.2)	1(1.7)	5(6.8)	28(9.2)
전문성을 갖추려고 배우는 모임	13(18.8)	29(27.9)	6(10.3)	8(10.8)	56(18.4)
취미로 배우는 모임	35(50.7)	18(17.3)	34(58.6)	7(9.5)	94(30.8)
취미를 공유하는 친목모임	13(18.8)	36(34.6)	16(27.6)	45(56.8)	107(35.1)
기타	6(8.7)	1(1.0)	1(1.7)	12(16.2)	20(6.6)
총	69(100)	104(100)	58(100)	74(100)	305(100)

표 13 문화클럽 유형별 특성

- 이 조사결과에서 보면 문화통화 도입 관련하여 유의미한 지점들이 발견된다. 먼저 사회공헌 활동과의 연관을 찾으면 문화통화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커뮤니티의 성격과 클럽의 유형별 특성에서 공헌에 대한 의지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로 취

28) 성남문화재단, [성남시 사랑방문화클럽 실태 및 욕구조사], 67쪽에서 재인용.

29) 성남문화재단, 위의 자료집, 119쪽에서 재인용.

미 모임들을 전문가나 예술가들과 연결시켜 클럽의 활동을 고도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클럽들의 진화 모델을 문화통화를 이용한 교습 활동과 연결시키면 클럽의 전문성과 사회적 기여도를 공히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또한 문화클럽 조사 연구에서는 전체적으로 예산 지원(22.6%), 모임공간 지원(18.2%), 질 높은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13.5%), 발표장소 지원(12%)로 나타났다. 다음은 문화클럽별 지원 요구 현황이다³⁰⁾.

지원항목	친목클럽	배움클럽	숙련클럽	공헌클럽
질 높은 프로그램 제공	12.0	22.0	10.0	10.1
모임 공간	19.0	17.0	19.0	17.8
발표 장소	10.0	8.0	13.0	16.8
다른 커뮤니티와의 교류	4.0	6.0	6.0	4.4
전문 지도자 연결	10.0	11.0	7.0	7.4
예산 일부 지원	23.0	17.0	26.0	24.2
커뮤니티 홍보공간	3.0	3.0	2.0	2.7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	3.0	2.0	3.0	1.7
문화관련 행사	10.0	6.0	12.0	12.8
커뮤니티 관심 정보 제공	5.0	7.0	2.0	2.0
총	100.0	100.0	100.0	100

표 14 문화클럽의 요구사항

- 이 결과에서 추정하면, 문화클럽의 요구는 예산 지원과 공간 지원(모임 공간과 발표 장소)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기타 친목클럽과 배움클럽에서는 프로그램 제공과 전문지도자 연결 등의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반면 숙련클럽과 공헌클럽은 발표 장소와 문화관련 행사 참여 의사가 상대적으로 높다. 이러한 결과는 클럽의 유형에 따라 문화통화 시스템에 참여하는 방식이 다를 것으로 추정가능하다.

- 성남 문화재단의 포지션에서 보자면, 이러한 결과는 문화통화 도입에 있어 전략 원칙 설정을 가능하게 한다. 성남 문화재단은 공간과 예산에 대한 지원 기능을 하기 위해 아마추어 문화예술활동 지원 사업 등을 신설하고, 문화클럽 지원 사업을 문화통화 사업과 연계하여 한편으로는 클럽의 전문성을 업그레이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사회와의 연관을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아마추어 및 클럽 지원의 경우 목적별 지원사업의 성격을 강하게 취하면서 일상 창작과 생활예술의 근거로 육성해나가는 정책 목표를 분명히 하면, 문화통화는 이러한 목적을 추진하는 엔진으로 기능할 가능성을 부여받게 된다.

○ 분석 결과의 전략적 도출

■ 공간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30) 성남문화재단, [성남시 사랑방 문화클럽 실태 및 욕구조사], 2006, 143쪽에서 재인용.

- 공간의 부족은 문화예술인들에게 현안 문제일뿐더러 아마추어 문화클럽에서도 가장 큰 활동 제약요소로 파악되었다. 문화예술인들의 경우, 창작공간은 개인 혹은 공동작업실의 형태로 75% 정도가 고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³¹⁾. 하지만 이 공간의 권리관계는 임대료가 77.3%에 이르러 예술인들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³²⁾.

- 특히 예술인들의 활동 발표 및 전시 공간은 비용 부담을 제외하더라도 제도적 지원이 매우 미흡하며, 문화클럽의 경우에는 모임과 활동, 발표 공간 모두에서 큰 제약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클럽 조사대상 303개 중에서 활용가능한 개인스튜디오 및 작업실을 가진 경우는 40여 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³³⁾.

- 조사결과에 따르면, 문화예술인과 문화클럽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공간의 제약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예술 활동의 제약요소를 고려하면 문화통화 도입에 있어 공간의 제공이 핵심적인 지점일 수 있으며, 문화통화와 공간 네트워크를 결합시키면 초기적인 문화통화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전략적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문화클럽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재단이 제공하고, 이 공간을 교류와 활동의 장소로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 연관 시설들 사이에 공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의 시설들의 경우 행정적 협력 조치를 통해 활용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사적 공간에서 문화통화를 사용하게 한 뒤 문화재단이 예산 범위 내에서 공간 사용 비용을 환전해주는 방식을 도입한다.

■ 문화예술인 및 문화클럽들의 사회공헌 의지와 연계 방안

- 선행 연구에서는 문화 클럽의 유형을 친목클럽, 배움클럽, 숙련클럽, 공헌클럽으로 구분하였다. 문화통화 도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문화통화와의 연결가능성은 친목클럽 < 배움클럽 < 숙련클럽 < 공헌클럽 이라는 스펙트럼 상에서 배치될 수 있다.

- 물론 문화클럽의 유형에 따라 문화통화에 참여할 객관적 가능성이 다르다. 친목클럽은 내부 결속이 목적이어서 통화에 참여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배움클럽의 경우는 지역 사회에 대한 관심도는 낮지만, 학습 참여 욕구를 가지고 있어 문화예술 전문가와 연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숙련클럽은 배우는 과정 및 발표 욕구를 가지고 있어 문화예술 전문가와 공간 제공 등과 연결될 가능성이 크고, 공헌클럽은 대외 활동 정도가 높아 문화통화 전반의 피드백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 이러한 차원에서 보자면 사회공헌 활동은 문화통화 활성화의 전략적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예술인들과 문화클럽은 사회공헌의 의지는 있지만, 정보를 충분히 구할 수

31) 성남문화재단, [2006 성남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연구], 48쪽.

32) 성남문화재단, 54쪽.

33) 성남문화재단, [사랑방 문화클럽 발전방안 연구], 2006, 56-57쪽.

없다고 응답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재단이 사회 공헌 관련 정보를 취합하고, 사회공헌에 문화활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기능을 발휘하면 문화통화의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 문화재단의 정보 및 활동 연계 기능은 문화예술 활동이 장기적으로 문화환경을 개선하는 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통화제도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이 제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문화도시 만들기 과정과도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다.

■ 문화클럽의 핵심 전략 거점화

- 문화클럽의 중요성은 관계 형성을 통해 문화를 학습하고 교환하는 문화통화의 개념과 조응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문화클럽들은 최근 부상하고 있는 생비자(prosumer) 개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매개 그룹으로 발전 가능하다.

- 사랑방 문화클럽은 단계적 발전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다. 문화클럽의 발전이 문화도시의 구체화라는 점에서 단계적 발전을 위한 지원 전략을 세우는 일이 필요하고, 이 전략의 구축 과정에서 문화통화제도가 활용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문화클럽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해서는 상호호혜적인 '지식의 순환'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고, 이러한 상호협력을 문화통화를 통해 활성화할 수 있다.

- 문화클럽들의 활동에 문화통화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면, 이후 예술인들의 지원 사업 중 일부를 문화통화를 활용한 공간 사용 및 활동 연계 등으로 확장시킬 수 있다. 특히 성남 문화재단에서 문화클럽에 대한 명확한 정책 의지와 지원 사업이 구체화되어 있어 문화통화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하는 데 전략적으로 적합하다.

- 이러한 중요성을 고려하면 초기에 사랑방 문화클럽 지원사업과 문화통화 사무국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통합 사무국의 운영은 정보의 순환 및 양 사업의 연계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4-3 성남시 지역통화 사례 분석

4-3-1 사례

○ 성남참여자치연대

- 2003년 회원간의 긴밀한 관계를 기반으로 공동체 확대를 목표로 사업을 기획 추진하였는데, 당시 교환품목으로는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는 소위 중간계층에 해당하는 단체 회원들이 생활기반으로 갖고 있던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세차장, 카센터, 비디오가게, 세탁소, 분식점 등을 중심으로 운영하였다. 초기 회원의 규모는 약 200여명 정도였는데, 이후 저변 확대를 모색했으나, 회원들의 참여부족으로 제대로 집행을 해보지 못한 채 사

업이 폐기되었다.

○ 성남청년대학의 사례

- 2000~2002년까지 '두레마을' 이라는 이름으로 300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시행하였다. 상근자 2인을 중심으로 단체를 거쳐 간 2500여 동문들과 회원 주변을 1차 대상으로 하여 회원 확보해 갔으며, 거래품목으로는 회원들의 생업과 단체의 문화교육적 기능을 결합한 형태로 운영하였다. 회원으로 가입하면 같은 회원업체에는 10%의 할인혜택을 주고 회원들은 청년대학의 정기 강좌에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사업을 하는 회원의 경우 정기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었으며, 청년대학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은 자동가입 형태로 회원을 확대해갔다. 가맹점회원의 경우, 대부분 주위 관계에 기초하여 확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으며 청년대학이라는 단체에 후원하는 의미와 작은 규모이기는 했지만 회원들이 직접 찾아와 거래를 확대하는 이점을 강조하여 홍보하고 권고해갔다. 하지만 CMS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회원들의 회비를 매월 수납하는 방법이 없어 매번 사람이 찾아가서 회비를 걷는 소모적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상근인력 2인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또한 거래를 위해서는 해당 가맹점을 이용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비디오 하나를 빌리기 위해 다른 동네에 있는 회원가맹점을 찾기에는 비용적 측면과 수고로움 등 문제점 발생하면서 회원들의 이용률이 적었고, 이러한 몇 가지 문제들이 개선되지 못하면서 결국 사업을 폐기하기에 이르렀다.

4-3-2 합의와 고려사항

- 1995년 영국의 지역통화운영단체(레츠, LETS)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던 조사결과에서 90개 단체들이 토로한 어려움은 다음과 같다.³⁴⁾

- 레츠의 이념에 대한 불신
- 부채에 대한 두려움
- 거래의 여건 조성
- 신규회원확보
- 교역지역이 너무 넓지 않을까하는 불안
- 이용가능한 재화와 서비스의 범위 확대

- 성남참여자치연대와 성남청년대학이 겪은 어려움 역시 영국의 사례와 다르지 않다. 지역통화 운영 초기 핵심회원들은 지역통화의 이념에 대한 신념을 갖고 있어야 하며, 이들이 단기간 내 통화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신규회원을 늘림으로써 통화의 활용범위를 확대하고, 동시에 발생한 여타 지역통화 또는 대체통화와 상호교역체제를 구축해내지 못 할 경우, 초기 부채에 대한 두려움이 쌓이고 핵심회원들의 에너지가 소진되면서 통화운영체는 소멸할 수밖에 없어진다. 이러한 성남지역통화 초기 시도와 외국의 사례는 성남문화통화제의 운영 모델을 제안하는 주요한 고려점이 된다.

5. 성남문화통화제 모델 제안

34) 조너선 크롤 저, 박용남 역, 『레츠』, 도서출판 이후, 2003, 83쪽

5-1 재단주도모델 : 사랑방문화클럽활성화를 중심으로

5-1-1 모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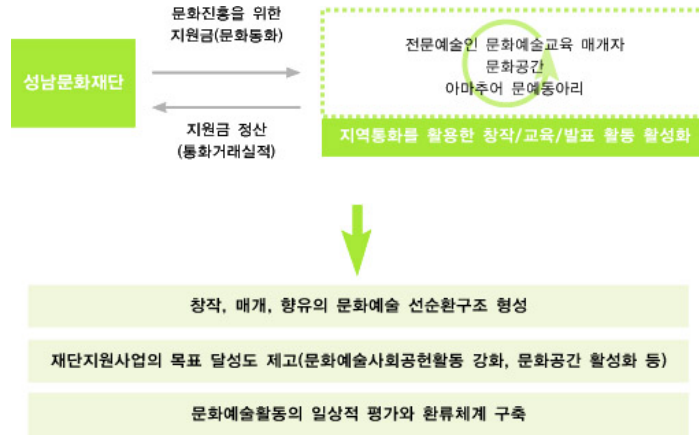


그림 4 재단주도 문화통화운영사업 개념도

5-1-2 기본흐름도(안)

* 사업흐름은 번호 순으로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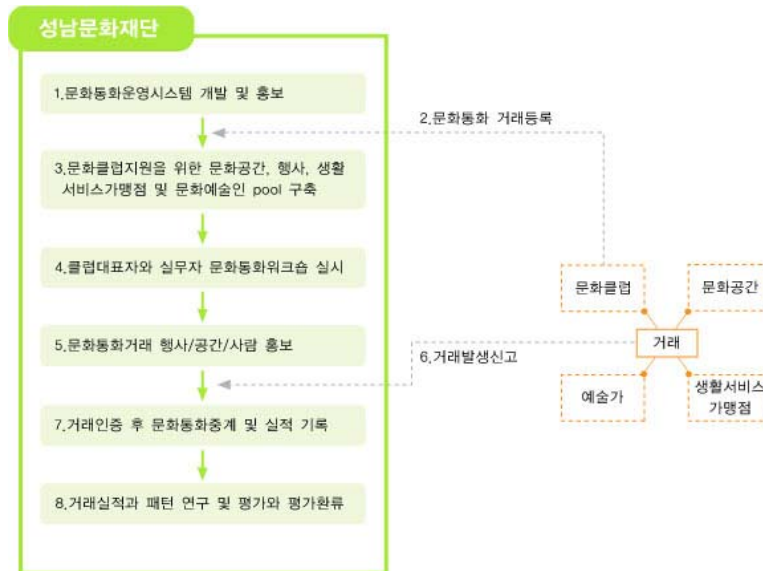


그림 5 재단주도 문화통화운영사업 흐름도

5-1-3 사업의 목적과 추진 원칙

- 건강한 지역문화생태계 조성
- 주체적 문화생비자로서의 문화클럽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 지역사회 문화예술 연계자원 네트워크
- 문화예술 창작과 향유의 선순환 체제 구축
- 지역의 문화여건 개선을 위한 문화자원 확대 재생산

5-1-4 사업의 내용

5-1-4-1 사업범위 및 대상

- 성남문화재단의 <성남시 문화클럽 활성화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와 동일

5-1-4-2 사업내용

- 문화통화운영시스템 개발 및 홍보
 -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내 지역통화 관련 시스템 중 미내사클럽의 온라인 통화거래 시스템(<http://www.fmkorea.or.kr/main/main.php>)이 본 연구에서 대상영역으로 삼고 있는 성남문화통화 운영시스템 구축과 가장 유사함. 시스템 개발 구축에 있어 이를 적절히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문화통화시스템 도입에 대한 홍보는 조사된 전체 클럽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통화거래등록을 유도함. 거래등록 시에는 반드시 예상되는 통화거래품목의 범주로서의 ‘공간’, ‘교육’, 그리고 ‘문화예술행사’를 나누고 각 클럽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유도할 것.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문화클럽지원을 위한 문화공간, 생활서비스가맹점 확보 및 문화예술인 POOL구축’에 활용함.

클럽명			
	대표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전화	
		이메일	
	실무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전화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활동지역			
제공 서비스	공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와 물품을 입력하세요.
	교육		
	문화예술행사		
요청 서비스	공간		받고 싶은 서비스와 물품을 입력하세요.
	교육		
	문화예술행사		
단체소개			

표 15 문화통화 거래등록 양식 예시

- 홍보를 할 때는 향후 문화통화활용 활성화 기여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원사업이 실시될 예정임을 안내하면서 통화의 등록과 거래를 활성화하도록 함.
- 문화클럽지원을 위한 문화공간, 생활서비스가맹점 확보 및 문화예술인 POOL구축
 - 문화클럽들이 당장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통화 거래등록 시에 요청서비스로 등록한 ‘공간’(모임, 연습, 발표, 뒤풀이)와 전문예술인들로부터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교육’ 기회, 그리고 클럽활동 관련 문화예술행사 ‘향유’ 기회라는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거점이나 주체와 예술행사를 확보하고 문화통화거래등록을 하도록 유도함.
 - 통화거래활성화를 위해서는 재단 차원에서 통화 거래 공간의 확보가 필수적임. 재단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아트센터를 활용하여 통화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생활서비스 영역에 해당하는 뒤풀이 장소를 적극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자원봉사 등을 통해 축적된 문화통화를 소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

시에 향후 문화통화가 생활서비스 영역으로 확장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검토해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는 클럽회원 간 잦은 회합의 자리를 제공함으로써 클럽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이려니와 신뢰에 기반하는 소통의 관계를 지원하는 통화제도의 성격에도 부합함.

<예시>

- 공간(모임, 연습, 발표, 뒤풀이 공간) 확보
 - > 아트센터의 기존 대관시설 전체
 - > 아트센터 유휴공간을 모임공간이나 연습공간으로 개조한 후 대관
 - 예1. 오페라하우스 1~2층 개방형 모임공간으로 활용(5,000굽이/시간)
 - 예2. 아트센터 사무동 1층 컨퍼런스 홀 대관(10,000굽이/시간)
 - 예3. 뮤즈홀(5,000굽이/시간)
 - 예4. 아트센터 지하의 개인음악연습실(6평 규모)을 소규모클럽연습실로 활용가능토록 협의 후 대관(5,000굽이/시간)
 - > 성남지역 내 청소년수련시설,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 내 공간을 문화통화로 대관할 수 있도록 섭외
 - > 아트센터에서 근거리에 있는 호프집이나 커피숍, 또는 식당을 뒤풀이 또는 모임 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섭외
- 전문예술인(단체) 풀 구축
 - > 문화통화거래 가능한 각 장르별 다양한 역할의 전문 예술인(단체) 모집
 - > 강의나 지도, 작품 스텝 참여는 타임머니방식으로 통화 지급. 예를 들어 1시간 강의는 30,000굽이.
 - > 공연이나 전시 등의 경우, 문화통화로 받을 수 있도록 함.
 - > 현금 환전 가능 시기는 12월10일~20일로 제한. 성남문화재단에서는 문화통화온라인거래내역을 확인하고 환전 가능 시기 1개월 전부터 홍보. 환전요구가 없을 경우 당해문화통화는 12월21일자로 자동 소멸. 단, 실적으로는 남음>(*현금환전은 초기 통화제 운영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인센티브를 현금환전 대신 다른 예술인지원사업에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임)
- 문화예술행사 풀 구축
 - > 문화클럽이 문화예술활동으로서의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마을 축제나 자원봉사 프로그램 풀 구축.
 - > 아트센터의 문화예술행사 초대 프로그램 등을 적극 활용하여 문화클럽이 클럽활동과 연관된 전문적인 문화예술행사관람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문화통화 활용 문화클럽 대표자와 실무자 워크숍
 - 문화통화제 도입 취지와 활용방법, 그리고 클럽 간의 교류활성화를 위해서 문화클럽 대표자와 실무자 워크숍을 실시함.
 - 워크숍은 문화통화를 직접 활용하면서 생활해보는 프로그램으로 기획 운영함으로써 통화제에 대한 참가자들의 이해를 제고하도록 함. 이를 위해서는 1박2일 정도

로 숙박을 함께 해보는 경험이 필요할 것임.

- 문화통화 거래 행사/사람/공간 홍보

- 문화통화를 활용 주체들은 자신들을 알리거나 통화를 사용하지 않는 다른 행사에 비해 일반인들에게 널리 홍보될 수 있을 것에 대한 기대가 있음. 문화재단측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문화통화를 활용하는 행사나 공간 등에 대해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는 마을 단위 축제에 성남문화클럽들이 초대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임.
- 성남문화통화 관련 소식을 직접 발행하고 문화통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홍보하는 방법 외에도 지역 언론이나 방송을 적극 활용하여 개별 행사나 단체들의 힘만으로는 벽찰 수밖에 없는 홍보를 지원함으로써 통화활용의 기대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음.

- 문화통화 거래인증 및 중계와 기록(미내사클럽 홈페이지 참조 <http://www.fmkorea.or.kr>)

- 문화통화의 거래는 당사자간 호가를 통해 조정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거래는 온라인 인증을 통해 최종적으로 거래가 성립되었음을 확인토록 함. 이러한 절차는 아래와 같은 프로세스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임.

거래 상태	거래등록	제공하거나 요청하는 서비스를 거래소에 등록함	↓
	거래대기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요청하는 거래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림	
	서비스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받음	
	통화지급	통화를 지급하거나 받음	
	지급완료	통화지급이 완료됨	
	거래완료	거래가 종료되거나 보류됨	

표 16 문화통화 거래절차

- 거래 당사자들이 직접 만나서 거래한 후 이를 온라인에 등록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간소화된 거래절차에 대해 준비해둘 필요도 있음.
- 거래등록 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등록토록 함.

거래명	
거래종류	(+) 제공거래 / (-) 요청거래 * 제공거래나 요청거래 중 선택토록 함
분류	행사, 공간, 교육으로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선택토록 함
통화액	() 문화통화 + () 현금 * 괄호 안에 기대하는 거래금액을 적도록 함
거래내용	*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인지 설명함
이미지	* 파일로 첨부
파일	* 파일로 첨부

표 17 문화통화 거래등록양식 예시

- 문화통화 거래 패턴 연구와 실적 평가 및 환류

- 문화통화 거래실적은 통화운영사무국과 통화당사자들이 언제든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온라인상에 클럽별로 소위 'My Page' 정도를 둬.

* 거래명을 누르면 거래기록을 볼 수 있음

()님의 문화통화 거래 내역						
()년 ()월						
거래일자	거래회원(ID)	거래명	수입		지급	
			통화	현금	통화	현금
합 계 (총거래 : 00 건)			0000	0000	0000	0000
· 받은거래 : 00건		· 통화 총 거래량 : 0000		· 현재 통화 보유액 : 000000		
· 제공거래 : 00건		· 현금 총 거래량 : 0000		· 마이너스 통화 한도액 : 000000		
· 총 거래 : 000건						

표 18 문화통화 거래내역 조회 예시

- 이러한 개별 클럽들의 통화 거래 페이지를 전체적으로 통계화 할 수 있도록 초기 시스템을 구축해둬으로써 평가환류가 일상적으로 가능토록 함.

5-1-5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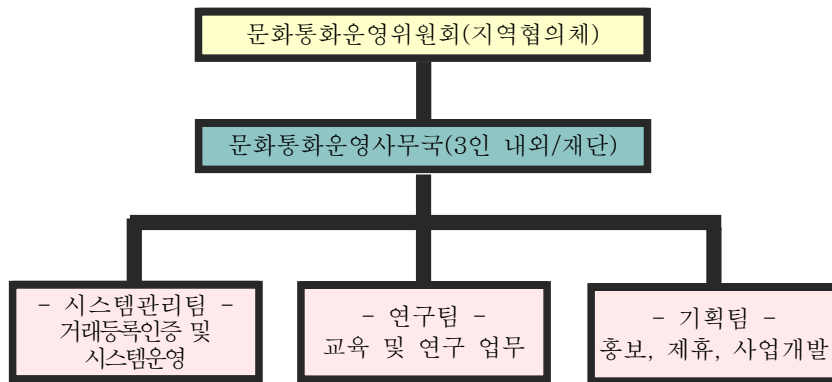


그림 6 문화통화제 운영 추진 체계

5-1-6 추진전략

- 문화클럽 동호인들의 상황과 요구에 근거한 사업계획 수립 및 주체적 참여 유도
- 성남문화재단의 기 사업 연계방안 적극 강구 : 사랑방 문화클럽 활성화 지원사업 / 성남인의 창작활동 진흥사업 /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등
- 성남시의 지역적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고 사업주체의 준비 정도에 기초한 사업 추진
- 문화클럽 동호인들의 문화예술향유기회확대와 성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산, 공간, 인력 등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근거한 시스템 운영
- 마을축제-예술인-동호인-문화공간-시민 등의 각 문화주체들이 서로 이어지는 선순환 모델사례 구축을 일차적 목표로 진행하고, 향후 성남시 문화클럽을 비롯한 문화예술진흥 사업과 성남시 문화복지와 성남시민들의 생활 전반의 서비스지원제로 확대 운영
- 향후 타 지역 확산을 위한 단계적 추진 계획 마련

5-1-7 2007시범사업 추진일정

- 재단에서 문화클럽활성화를 위한 문화통화운영시스템 개발 및 홍보(3~4월)
- 문화클럽에서는 문화통화거래 신청(4~5월)
- 재단에서 문화통화거래가 가능한 공간, 행사, 전문예술인(단체) 풀 구축(5~6월)
- 아이디어를 발급받은 문화클럽 실무책임자 대상 문화통화 활용 워크숍 실시(6월)
- 시범사업실시(7월~11월)
- 사업실적 정리 및 평가 후 시스템 보완(12월)

5-1-8 고려사항

- 통화의 순환률이 그다지 높지 않을 가능성 고려
 - ‘지역사회문화봉사활동 확대 유도’, ‘지역의 사랑방 문화클럽활성화’, ‘지역문화공간운영 활성화’라는 재단의 사업 목적 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문화통화를 사용할 수 있는 용처를 재단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문화예술 분야에 한정함으로써 통화의 순환률이 높지 않을 수 있음을 고려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서의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함.

- 환금 여부에 따른 고려사항과 재단의 대처
 - 초기 정착과 전문적인 문화예술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서 인센티브제로 법 정통화(W원)로 환금할 경우, 재화의 축적 수단으로서의 화폐라는 이해관계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특정 관계집단을 통해 문화통화제가 악용될 여지도 있음. 건전한 통화제 운영의 초기 정착을 위한 지원기관으로서의 재단의 노력이 필요함.
 - 환금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환금에 상응하는 ‘아트센터무료사용’, ‘성남문화재단 문화 예술행사초대’, ‘문화통화를 통한 문화자원봉사상’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통화사용을 유도해야함.(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는 성남시 차원에서 문화통화운영 조례 등이 제정될 필요가 있음)

5-1-9 예산(단위 : 천원)

항목	내역	금액	
인건비	팀 장 : 1인*1,500*10개월 연구원 : 2인*1,000*10개월	35,000	
사업비	용역발주	시스템 개발 및 구축 용역	10,000
	워크숍(1박2일)	100명*40	4,000
	인센티브제공	클럽 : 30클럽*1,000 공간 : 15공간*2,000 * 예술인은 지원사업의 가산점 제공	60,000
운영비	서버임대관리비	1,000*8월	8,000
	홍보	소식지발간 및 배포 2,000부*8월*1	16,000
합계		133,000	

표 19 재단주도형 문화통화제 1차년 운영예산

5-2 재단지원모델 : 지역문화공동체 활성화를 중심으로

5-2-1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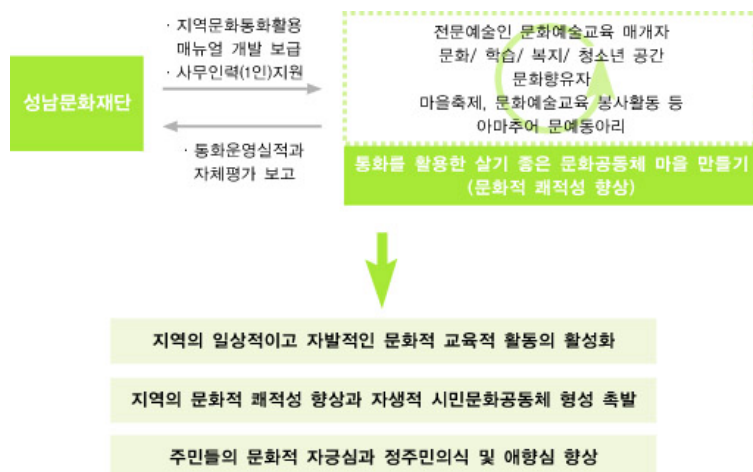


그림 7 재단지원 문화통화제 모델 개념도

5-2-2 기본흐름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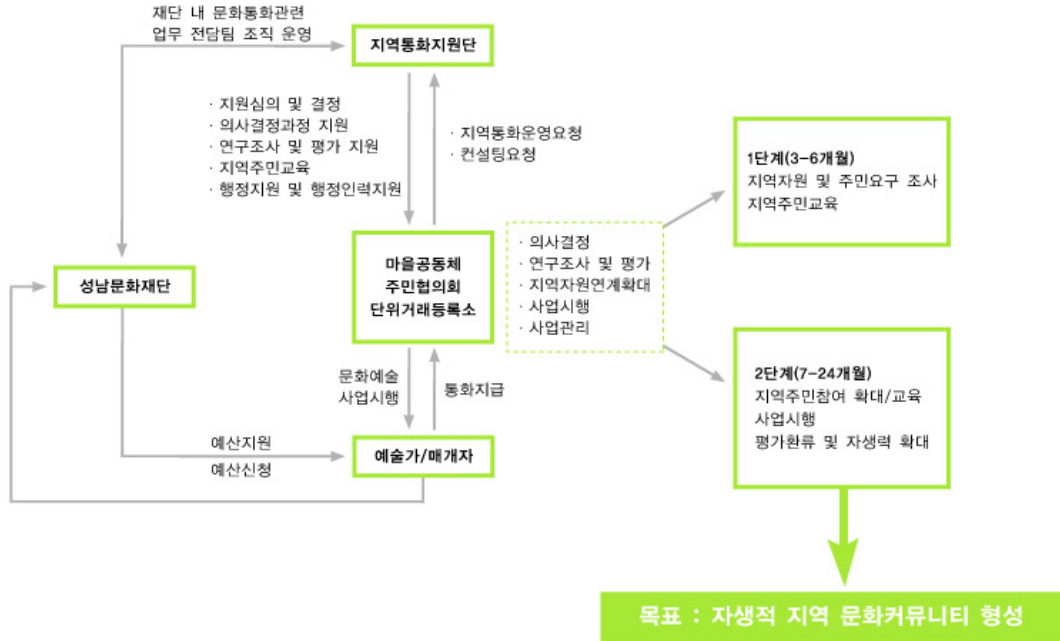


그림 8 재단지원 문화통화제 모델 사업 기본 흐름도

* 사업 흐름은 번호순으로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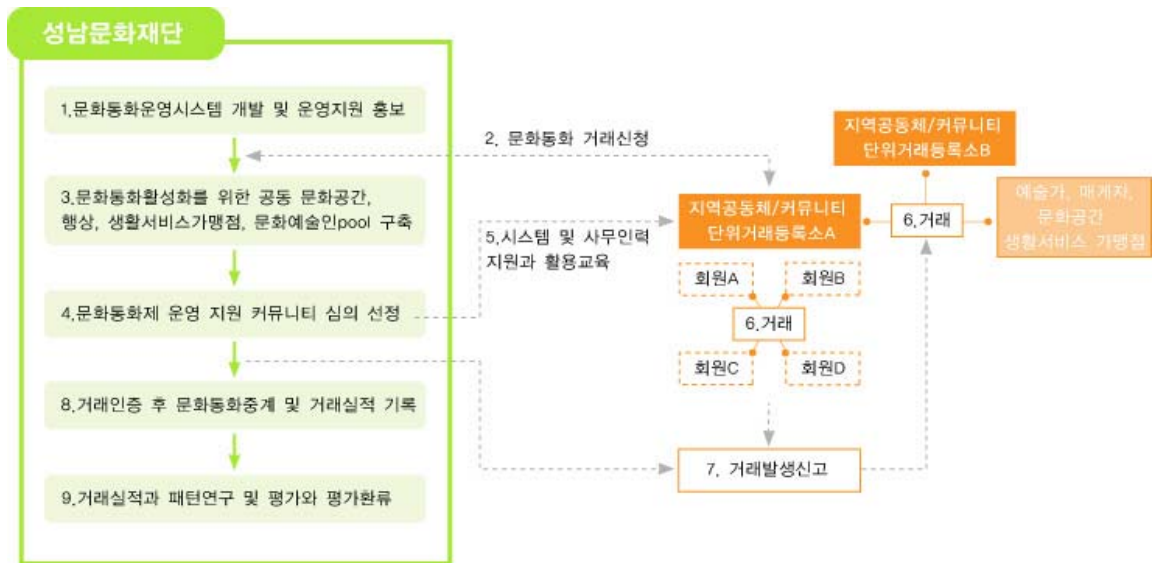


그림 9 재단지원 문화통화제 모델 사업 세부 흐름도

5-2-3 사업의 목적과 추진 원칙

- 건강한 지역문화생태계 조성
- 마을의 문화여건 개선을 위한 주민참여의식 제고와 문화자원 확대 재생산

- 마을의 문화적 쾌적성(amenity) 향상
- 지역사회 문화예술 자원 네트워킹
- 마을 단위의 문화예술 창작, 매개, 향유의 선순환 체제 구축

5-2-4 사업의 내용

5-2-4-1 사업범위 및 대상

- 성남문화재단의 <성남시 문화클럽 활성화 지원사업>과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대상 범위와 동일

5-2-4-2 사업내용

- 문화통화운영시스템 개발 및 구축
 - 온라인 운영시스템과 오프라인 운영시스템을 병행 운영함. 오프라인 통장기장방식의 운영시스템과 온라인 시스템을 같이 사용함에 있어, (가)통화장터 등에서 이루어지는 거래 당사자 간 면대면 거래는 직접 통장을 이용하고, 이를 격주 또는 월 단위로 온라인시스템에 기록해서 실적을 남기는 방식으로 운영함.
 - 그리고 단위 거래등록소를 벗어난 이웃 거래등록소와의 거래나 예술가, 매개자, 문화공간, 그리고 생활서비스공간과의 거래는 온라인 운영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으로 한정함. 온라인 운영시스템은 본 연구 5-1-4-2의 운영시스템과 동일하고, 오프라인 운영시스템은 광명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통화 ‘그루’나 성남시의 모람아지트에서 2006년 시범적으로 운영한 통장기장 방식을 참고하여 개발 운영함.
 - 단위 거래등록소의 통화단위는 자체적으로 정해서 운영하고, 성남문화재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중앙 거래등록소는 각 단위 거래등록소의 통화가치를 ‘(가)성남문화통화 굵이’와의 환가치를 월 단위로 평가함.
 - 단위 거래등록소 간의 거래에 있어 개인 간 거래는 불가하며, 단위 거래등록소를 통해 공용 통화인 ‘굵이’와 환통화하여 거래토록 함.
 - 단위 거래등록소에서 운영하는 통화시스템에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통장에 들어가야 할 내용 예시

거래 일자	거래 자	거래내역	거래		잔액	거래자서명
			⊕거래	⊖거래		
			⊕	⊖		
			⊕	⊖		
			⊕	⊖		
			⊕	⊖		
			⊕	⊖		
			⊕	⊖		
			⊕	⊖		
			⊕	⊖		
			⊕	⊖		

표 20 광명시 문화통화 ‘그루’ 통장 양식 예시

- 지역문화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지역통화의 경우 단위 거래등록소의 회원들

간의 거래가 기반이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공용 등록시스템에서 문화통화 운영 지원 선정 단체에 한해 단체등록을 먼저 하도록 하고, 이후 단위 거래등록소별로 개인등록을 하도록 유도한다. 단체등록양식은 5-1-4-2를 참조하고 개인등록 양식 예시는 다음과 같음.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전화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활동지역								
주요 제공 서비스	<table border="1"> <tr> <td>공간</td> <td></td> </tr> <tr> <td>교육</td> <td></td> </tr> <tr> <td>문화예술행사</td> <td></td> </tr> </table>	공간		교육		문화예술행사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와 물품을 입력하세요
공간								
교육								
문화예술행사								
주요 요청 서비스	<table border="1"> <tr> <td>공간</td> <td></td> </tr> <tr> <td>교육</td> <td></td> </tr> <tr> <td>문화예술행사</td> <td></td> </tr> </table>	공간		교육		문화예술행사		받고 싶은 서비스와 물품을 입력하세요
공간								
교육								
문화예술행사								
자기소개								
가입동기								

표 21 문화통화 거래등록 양식 예시

- 홍보는 이미 공동체성을 갖고 있는 생활협동조합이나 대안학교, 문화클럽, 상가연합회, 아파트주민회 등을 중심으로 하고, 통화운영을 위한 인력과 교육, 그리고 시스템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문화통화활용 활성화 기여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원사업이 실시될 예정임을 안내하면서 통화제 운영신청과 등록 및 거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함.
- 문화통화제 운영활성화를 위한 공용 문화공간, 생활서비스가맹점 확보 및 문화예술인 POOL구축
 - 문화통화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거래품목이 다양해야 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하면서 구매거래 만족도가 향상되어야 함. 하지만 시행 초기에는 커뮤니티 내부 거래로만 한정되면서 거래할 수 있는 품목이 그리 많지 않을 수 있으므로, 중앙거래등록소에서는 단위 거래등록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나 생활서비스

가맹점을 확보해두고 단위 거래등록소의 거래가 확장 거래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해서는 앞 장 5-1-4-2 참조.

- 문화통화제 운영 지원 커뮤니티 심의 선정

- 문화통화제 단위 거래등록소 선정은 이미 공동체성을 형성하고 정례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 지원을 기본 원칙으로 해야 함.
- 지원은 회원수 200명 이상의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하며, 2-3개 이상의 동 단위를 연계하면서 활동하는 마을 커뮤니티, 50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2-3개 단지 연계 가능), 3개 이상이 연계된 문화클럽, 상품의 직접적 거래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가번영회(최소 30가게 이상), 법인격 문화예술단체, 200명 이상 사업장의 직원회, 조합원 200명 이상의 생활협동조합 등의 조합형태 등이 있고, 이를 대상군 별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음.

대상군	지원가능 커뮤니티
지역기반 커뮤니티	아파트주민회, 마을번영회, 부녀회 등
조합형태 커뮤니티	생활협동조합,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등
학습조직	공교육학교와 학생 수 100인 이상의 대안학교
문화클럽	성남문화재단 등록 문화클럽
직종기반 커뮤니티	상가번영회, 지원상조회, 각종 협회 등
법인격 문화예술단체	예총, 민예총, 문화원, 문화연대, 성남문화재단 등

표 22 문화통화제 운영 대상군별 지원가능 커뮤니티

- 지원내용은 반 상근 사무인력 인건비 1인 100만원/월 지원, 온라인 시스템 지원, 공용 가맹점 POOL 제공, 광역단위 거래 지원, 회원 교육지원, 기타 소식지 발간과 홍보 사업비 지원을 기본으로 함.
- 접수방법은 온라인, 우편 또는 직접 제출로 다양화하고, 제출서류로는 지원서 외 단체소개서와 사용 인감, 더불어 회원 30% 이상의 동의날인을 포함하도록 함.
- 선발 커뮤니티는 예산범위 내에서 하되, 가급적 1차년에는 대상군별로 1그룹씩을 선발토록 하고, 유형별 사례를 평가 축적해둘 필요가 있음.
- 심의는 지역인사, 문화예술계인사, 전문연구자, 성남문화재단 통화사업 담당 부서장, 성남시청 담당 부서장, 시의원이 골고루 심의위원으로 참가하여 사업의 중단 기적 발전 전망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그룹을 선정토록 함.

- 사무인력 및 시스템 지원 및 활용 교육 실시


- 문화통화제 도입 취지와 활용방법에 관한 회원 워크숍을 실시함.
- 워크숍은 단위 거래등록소별로 실시하며, 단체의 성격에 맞는 통화명 정하기에서부터 거래방식과 거래품목 등 통화운영에 필요한 세세한 항목에 관한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체크리스트에 대해 합의하는 과정으로 진행함. 이는 통화운영기관으로 지원하기 전에 회원들 간 미리 합의한 후 지원을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통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심의 선정 후 중앙거래등록소에서 재차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음.

항 목	개 요
시스템 명칭	
화폐 단위	
운영 목적	
세부 목적	
화폐가치 및 가격결정	
거래 방식	
조직 구성	
거래등록소 주요업무	
계정 관리	
주 거래 품목	
통용 지역	
현금 환전	

표 23 단위거래등록소 회원교육 의결사항 체크리스트

- 문화통화 거래 행사/사람/공간 홍보
 - 문화통화 거래 행사/사람/공간 홍보의 기본 방침은 5-1-4-2 참조.
 - 단위 거래등록소별로 소식지 발간은 가급적 단체의 고유한 회원 소식지(온라인 포함)를 활용토록 하고, 소식지에 들어갈 내용은 거래품목장터, 신입회원소개, 이달의 우수통화거래자 인터뷰, 신규회원모집광고, 이웃 단위 거래등록소 소식을 기본으로 구성한다. 이 중에서 이웃 단위 거래등록소의 소식과 문화통화 관련 전체 소식은 중앙거래등록소에서 일괄 취합 편집 제공함.

- 문화통화 거래인증 및 증계와 기록
 - 단위거래등록소와 중앙거래등록소 거래의 차이는 온라인 거래와 통장거래 병행이라는 차이가 있다. 온라인 거래는 모든 거래의 기록이 중앙 거래시스템을 통해 증계되는 반면, 통장거래 병행방식은 거래당사자간 면대 면으로 신용에 기반하여 통장에 직접 기장하는 방식과 온라인 거래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통장 기장된 내용은 주기적으로 온라인에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업로드 주기는 최대 1개월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중앙거래등록소는 11월말까지의 기록과 실적만을 평가와 평가환류 자료로 사용토록 함.
 - 거래절차는 기본적으로 5-1-4-2와 같으며, (가)문화통화 알뜰장터나 생활서비스가맹점 등을 통한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외에는 온라인 인증을 통해 최종적으로 거래가 성립되는 방식으로 운영함.
 - 통장기장방식의 직거래 예시는 다음과 같음.

지역통화 그루로 만드는 유쾌한 세상 

거래일자	거래자	거래내역	그루(GURU)거래		그루잔액	상대방 서명
			받음	지불		
2004.4.8	임정아	따카 샵포인트	⊕	⊖ 2,000	-2,000	임정아
4.21	장동만	만년필 리필카드내	⊕	⊖ 1,000	-3,000	장동만
4.28	고영준	드림라이트	⊕	⊖ 1,000	-4,000	SVT
4.28	고영준	메오패드	⊕ 1,000	⊖	-3,000	SVT
5.16	남경화	백일머구기	⊕	⊖ 1,000	-4,000	남경화
5.18	김영근	그루학교 강의	⊕ 50,000	⊖	+46,000	김영근
5.18	김영근	사무국에 기부	⊕	⊖ 40,000	+6,000	김영근
6.10	임정아	환도	⊕ 10,000	⊖	+16,000	임정아
6.10	임정아	그루통 상환	⊕	⊖ 20,000	-4,000	임정아

그림 10 통장기장방식 예시 : 광명지역통화 그루

- 문화통화 거래 패턴 연구와 실적 평가 및 환류
 - 문화통화 거래실적은 평가와 환류는 5-1-4-2 참조.

5-2-5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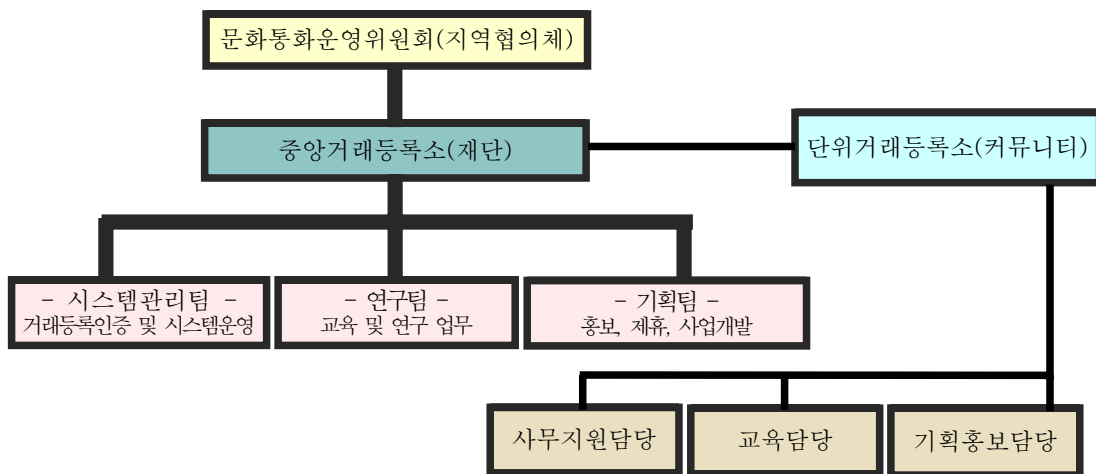


그림 11 재단지원문화통화제 추진체계도

* 단위거래등록소의 통화제도가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무지원담당, 회원들의 교육 담당, 그리고 새로운 회원을 발굴하고 가맹점을 개설하는 기획홍보담당을 할 수 있는 스태프들이 필요하다. 상근인력일 필요는 없으나 각 담당이 자신의 임무를 분명히 인식하고 업무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체제는 갖춰야함. 초기 정착을 위해서는 자기 공간이 있는 커뮤니티를 단위거래등록소로 지정하고 운영토록 하는 게 원칙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중앙거래등록소에서 지역의 3~5명 정도의 사무공간을 적절히 연결해주거나 중앙거래등록소의 공간 한 칸을 이용토록 제공해 줄 필요도 있음.

5-2-6 추진전략

- 초기단계에서 문화통화 이용 주체 형성에 주력
- 성남문화재단의 기 사업 적극 활용 : 성남인의 창작활동 진흥사업,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황과 요구에 근거한 사업계획 수립 및 자발적 참여 유도
- 공동체 구성원들의 문화예술향유기회확대와 성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산, 공간, 인력 등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근거한 시스템 운영
- 주체 형성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마을축제-예술인-동호인-문화공간-마을주민 등의 각 문화주체들이 서로 네트워크 될 수 있도록 미리 섭외된 매개자 그룹이 적극적인 컨설팅을 하고, 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마을문화환경개선과 마을축제 등의 공동체 행사 만들기
- 문화통화를 활용하는 각 공동체 간 연동체계 구축하고 통화거래를 통한 커뮤니티 간 교류사업 확대
- 향후 성남시 문화복지와 성남시민들의 생활 전반의 서비스지원제로 확대 운영

5-2-7 1차년 시범사업 추진일정

- 문화통화운영시스템 개발 구축 및 홍보(3~4월)
- 문화통화제 운영활성화를 위한 공용 문화공간, 생활서비스가맹점 확보 및 문화예술인 POOL구축(4~5월)
- 문화통화제 운영 지원 커뮤니티 심의 선정(5월)
- 사무인력 및 시스템 지원 및 활용 교육 실시(6월)
- 문화통화 거래 행사/사람/공간 홍보(6월)
- 시범사업실시(7월~11월)
- 사업실적 정리 및 평가 후 시스템 보완(12월)

5-2-8 고려사항

- 초기 시스템 설계의 어려움
 - 단위거래등록소와 중앙거래등록소 시스템 간의 연동 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됨.
 - 초기 단위거래소 사무국 운영 체계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공간, 기자재 지원 등의 노력이 필요함.
- 공동체 구성원들의 문화통화에 대한 이해 정도
 -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발적 통화운영 모델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통화활용 주체가 공동체 내에서 형성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주체를 발굴 육성하기가 어려울 수 있음.
- 문화통화운영조례의 필요성
 - 문화통화제의 정착단계까지는 예술인, 매개자, 문화공간의 참여유도를 위한 인센티브와 재단 기금의 문화통화 전환 사용에 대한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사랑방문화클럽활성화 모델과 마찬가지로 문화통화활용 촉진과 운영규정 마련을 위한 성남시 차원에서 문화통화운영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음.

5-2-9 예산(단위 : 천원) - 5단위거래등록소 지원 기준(1차년도)

항목		내역	금액
인건비	중앙거래등록소	팀 장 : 1인*1,500*10개월 연구원 : 2인*1,000*10개월	35,000
	단위거래등록소	5단위*1인*1,000*10개월	50,000
사업비	용역발주	시스템 개발 및 구축 용역	10,000
	워크숍(1박2일)	20명*5단위*40	4,000
	인센티브제공	단 위 : 2단위*5,000 공 간 : 15공간*2,000 * 예술인은 지원사업의 가산점 제공	40,000
운영비	서버임대관리비	1,000*8월	8,000
	홍보	소식지발간 및 배포 5단위*1,000부*8월*1	32,000
합계			179,000

표 24 재단지원 문화통화제 사업시행 1차년 예산

* 5-1 모델이 1차년도에 추진된다고 고려했을 때 사업비 중 시스템 개발비용은 줄일 수 있음.

5-3 금융카드사 연계 문화통화 응용형 모델

5-3-1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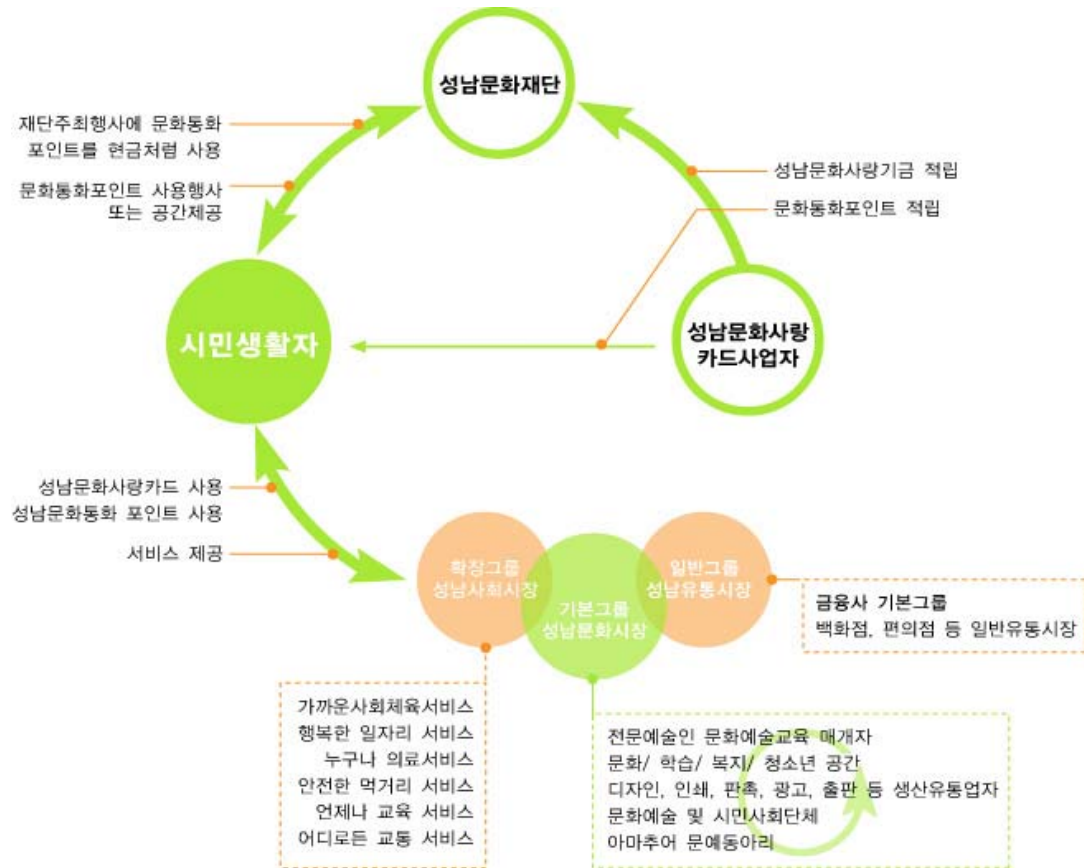


그림 12 금융카드사 연계 문화통화제 개념도

5-3-2 기본흐름도(안)

* 사업 흐름은 번호 순에 따라 진행



그림 13 금융카드사 연계 문화통화제 사업 흐름도

5-3-3 사업의 목적과 추진 원칙

- 성남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재원 창출
- 법정통화와 연계된 새로운 지역문화통화 시스템 개발 및 정착
- 문화도시 성남시 만들기를 위한 주민참여의식 제고와 문화자원 확대 재생산
- 성남시 문화산업의 활성화와 사회적 시장 개척
- 건강한 지역문화생태계 조성

5-3-4 사업의 내용

- 성남문화사랑카드제-지역문화통화제 도입 및 운영계획과 성남시 제안
- 성남문화사랑카드제-지역문화통화제 운영조례 제정 성남시의회 건의
- 성남문화사랑카드도입에 관한 금융사와의 업무협정체결 및 운영시스템 개발
- 문화사랑카드와 문화통화 사용 가맹점 모집

- 문화사랑카드홍보 및 카드발급
- 문화사랑카드와 문화통화 거래실적 모니터링
- 문화통화포인트 활용 사업 개발 및 홍보
- 평가 및 환류

5-3-5 추진전략

- 초기 성남지역문화시장과 사회적 시장 형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공유하면서 시민사회와 성남시의 이해를 구하는 데 주력
- 국가주도의 법정통화와 시민사회의 자생적 지역통화의 결합이 빚을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검토 필요
- 새로운 문화생성도시 성남시의 정체성 형성과 성남시의 문화재원 확대를 위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
- 문화예술인들의 문화예술창작기회와 시민들의 문화예술향유기회가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정통화제도인 카드를 활용한 새로운 문화시장 형성
- 점차 생태환경, 의료, 복지, 건강, 먹거리 등의 공공적 사회적 노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사회적 시장으로 확산

5-3-6 고려사항

- 성남시민사회의 합의와 성남시의 의지 필요
- 성남시의 관련 조례 제정
- 지역사회 시민참여 유도
- 법정통화와 지역통화의 연동 모델 개발을 위한 철저한 준비

6. 성남문화통화 활성화 추진전략

6-1 문화통화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쟁점

6-1-1 순환을 제고를 위한 시민의식 미성숙

문화통화가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강화하고 문화예술을 활성화하는 매체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순환율이 제고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사회주류적 질서와는 조금 다른 이념성을 가진 문화통화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과 법정통화보다 활용처의 부족과 사용의 불편함은 신입회원을 모집하거나 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장벽이 될 수 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익숙하지 않은 시스템을 통해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할 수 있으며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경우 신규회원확보와 회원관리를 위한 사무인력들의 수급이 용이치 않을 수 있다. 지역통화시스템을 일찍부터 도입해온 나라들에서도 교역수준이 단체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활발하게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한데, 20%의 회원이 거래의 80%를 담당하고 있다는 지극히 공통적인 현상이 자주 지적된다. 또한 성남과 같이 도시의 역사가 많지 않고 공동체 의식이 희박한 지역에서는 회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일이 힘들 수 있으며, 생협과 같이 이미 서로를 돕는 데 익숙한 커뮤니티들의 경우 굳이 통화제도를 사용할 필요를 크게 느끼지 않을 수 있다.

6-1-2 적정 재원 규모 산정의 어려움

초기 단기간 내의 정착을 위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등 공적 지원을 전제할 경우, 적정한 예산규모산정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예를 들어 통화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소규모 상점이나 중소기업, 공공문화센터 등을 통화의 활용처로 지정하고 세제혜택이나 플러스통화 계정에 대한 환급을 보장할 경우, 문화통화 회원들의 활용 정도에 따라 필요한 재원 규모가 큰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6-1-3 사회적 합의 도출의 어려움

이론상으로 문화통화 거래에 관한 책임을 관련 당사자들이 지는 구조인데, 초기 가입 시 회원규약을 통해 교환되는 서비스의 수준이나 품질에 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의 공적 구제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를 문화통화사무국이 책임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고, 그렇다고 문화통화를 활용하여 관람하게 된 공연의 수준이 형편없거나 구입한 그림이 위작이어서 사건이 법정으로 갈 때까지 통화사무국이 방관하고 있을 수도 없다. 또한 거래상 조세법이나 복지법과의 충돌 문제는 장차 문화통화 순환율과 거래량이 많아질 경우 반드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 통화를 활용해서 강의료를 법정화폐 가치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 수입을 올린 예술가에게 소득세를 물릴 수 있는가하는 문제와 비슷한 상황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최저생계비 지원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6-1-4 공공부문의 문화적 방향에 대한 개입과 거액 거래자의 시스템 장악 가능성

문화통화제에 대한 초기 정착을 위한 인센티브제 도입과 사무국 운영에 대한 공공적 지원이 이뤄질 경우, 자율적이고 다소 비제도적 성향의 문화예술의 특수성을 해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특정 예술장르나 향유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매체로 통화를 공공부문에서 활용한다면 이러한 공공부문의 개입에 대해 통화사용자들의 거부감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인센티브제의 경우 한정된 재원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커뮤니티 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전체 통화량의 50% 이상이 어떤 특정 단체가 가진 이념적 성향에 따라 운영된다면 공공부문의 개입과 유사한 거부감을 통화사용자들에게 줄 수 있다.

6-2 문화통화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운영 방향

6-2-1 적정재원마련 및 현실적 운영계획 수립

문화통화의 초기정착과 순환을 제고, 그리고 거래량 확대를 위해서는 먼저 현실적인 운영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홍보와 조직, 그리고 회원관리와 교육에 필요한 예산뿐만 아니라 문화통화제의 규모를 단계별로 상정하고, 이를 위한 적절한 사업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초기에 문화분야로부터 출발한다 하더라도,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차 교육적 문제, 주거 문제, 노동 문제, 육아 문제 등 기존 공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영역으로 확대되어 갈 것인데, 이를 각 단계별로 시행하고 연구평가하면서 다음 단계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액션리서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또한 문화통화제 도입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설명하거나 홍보를 할 때 어떤 개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잠재적 회원인 시민이나 정책입안자들이 갖는 첫인상이 좌우될 수 있다. “돈은 커뮤니티다”는 식의 추상적 개념보다는 버스카드나 토큰, 게임머니처럼 이미 일상에서 익숙한 용어를 사용해서 통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6-2-2 단계적 접근

성공적으로 정착한 세계 대부분의 지역통화단체들이 공통적인 경험은 초기 핵심 회원들의 의지와 활동이었다. 마찬가지로 성남문화통화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문화통화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의지가 있는 단체나 개인을 찾아내고, 이들이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문화통화를 활용해서 자신들이 목표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핵심 회원들이 소진되기 전에 통화를 운영할 의지가 있는 지역 내 다양한 그룹들의 생성을 촉발하고 자원활동 인력의 확보와 공적지원에 의한 안정적 운영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다음단계에서는 교육, 육아, 의료, 사회체육, 주거 등의 분야에서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중소상인들과 기업 등을 연결하고 주민세 납부, 공공시설 이용 등 공공적 영역으로 거래품목을 확대하면서 지역 내 여러 대체 통화들 간의 합의된 운영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다른 나라의 지역통화운동이 시도했던 멀티레츠시스템과 같이 전국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가칭 지역문화통화연대시스템

등을 마련해 볼 수도 있다.

6-2-3 성남시의 의지

이 보고에서에 제안된 성남문화통화의 성공적 정착은 성남시의 의지와 실천력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진입을 꺼려하는 시민들에게 문화통화의 신뢰성에 대한 보증을 하고, 일정의 지원을 약속한다면 통화제의 정착은 그리 어렵지 않다. 하지만 성남시가 이러한 의지를 갖기 위해서는 다방면의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주민세 등의 지방세를 문화통화로 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해 볼 수 있는 문화적 상상성이 요구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본 마츠다시나 영국 칼더데일이나 프롬과 같은 지방의회들이 지역통화를 지원 또는 시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이를 통해 지역 커뮤니티가 활력화된 사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여부에 따라 통화제의 정착과 활성화가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준다.

6-2-4 성남문화재단의 주도적 역할

성남시에서 처음부터 이러한 발의를 하고 시의 정책으로 반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민간차원에서 모델을 개발하고 시민들의 합의를 도출하면서 초기 정착을 주도할 역량있는 핵심적 단체가 필요한데 문화예술활성화와 시민들의 문화향유권 확대라는 목표를 갖고 운영되고 있는 성남문화재단의 경우 이러한 역할을 하는 데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이미 성남청년대학과 같은 지역 단체들이 지역통화운영에 의지를 갖고 시도했으나 실패했던 사례로부터 아직 지역 통화와 같은 개념이 근대화 과정에서 거의 파괴되어버린 우리 현실에서는 공공의 영역과 민간의 영역을 중재하는 중간자적 형태의 단체에서 양자를 조절하면서 시도할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된다. 이를 위한 성남문화재단의 역할을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역할 구분	세부 내용
사무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체 운영 : 시민, 문화예술단체, 지역 등 참여 - 시스템 구축 및 관리 : 전체 시스템 설계, 웹 기반 시스템 구축, 운영 관리 - 문화통화 홍보 : 언론, 대중 대상 홍보, 문화예술계 참여 유도 - 회원 유치 및 관리 : 신규회원(개인, 단위거래등록소) 유치, 소식지, 웹진 발간, 회원 대상 이벤트 개최
중앙거래 등록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등록 소프트웨어 개발, 보급 - 단위거래등록소 간 광역거래 관리 및 주선 : 거래 정보 교환 시스템 운영
문화통화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통화에 대한 신뢰 기반 제공 - 문화통화 거래를 위한 회원 신용 정보 제공 : 거래기록 제공 - 현금 환전 : 환전 심의 및 현금 제공
공공의 지원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자원 확보 - 단위거래등록소 활동 지원 : 거래등록 소프트웨어, 운영경비 일부 지원 - 재단 네트워크를 이용한 자원의 동원 - 기타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한 해결

[참고 문헌]

■ 논문

- 김형용, [한국 지역통화운동의 성격과 참여자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서울, 1999
- 경기문화재단, [문예진흥을 위한 지역통화 활용방안 연구], 2004
- 김해보, [지역문화재단의 문화통화 도입 및 활용방안 연구- 서울문화통화를 중심으로], 추계예술대학교 예술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성남문화재단, [사랑방 문화클럽 발전 방안 연구], 2006
- 성남문화재단, [성남시 사랑방문화클럽 실태 및 욕구조사], 2006
- 성남문화재단, [2006 성남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2006

■ 단행본

- Jonathan Crol, 『LETS Act Locally; The Growth of Local Exchange Trading Systems』, Calouste Gulbenkian Foundation, 1997, 박용남 번역, 『레츠, 인간의 얼굴을 한 돈의 세계』, 이후출판사, 2003

■ 정기간행물

- <공동선> 통권 제36호 1~2월호(윤홍순)

■ 보고서

- 마즈다시 기획부 정책심의실, [사회시장 형성에 관한 기본 조사연구], 성남문화재단, [성남문화통화 도입을 위한 일본 지역통화 연수집] 내, 2006

■ 기타 자료

- 2007년도 성남문화재단 세출예산서와 사업계획서
- 광명시평생학습원, '일본 지역통화 연수보고서', 2003

■ 인터넷 사이트

- 한발레츠 <http://www.tjlets.or.kr>
- 미내사클럽 <http://www.hearnow.co.kr>

문화통화 정책실천 TF연구진

책임연구원

전효관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박승현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장)

공동연구원

강원재 (서울시 대안교육센터 부센터장)

정석준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 과장)

연구보조원

우장순 (성남청년대학 부회장)



성남문화재단에서 활용 가능한 문화통화제 모델제안 및 실행전략 연구

발행일	2007년 2월
발행인	이대엽 이종덕
기획	노재천
발행처	성남문화재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757번지 성남아트센터 www.sncf.or.kr
인쇄	
